

제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 형용사 형성 파생법은 크게 접두사에 의한 파생법과 접미사에 의한 파생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접두사에 의한 파생법은 ㉠ 형용사 어근 앞에 뜻을 더하는 접사가 붙은 것이고, 접미사에 의한 파생법은 대체로 ㉡ 명사 어근 뒤에 어근의 품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접사가 붙은 것입니다. 그럼 아래를 참고하여, [학습 활동]을 해결해 볼까요?

[접두사] 새-, 시-

[접미사] -롭다, -되다, -답다, -스럽다

[학습 활동] 다음에서 ㉠,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보자.

나는 바닷가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바로 코끝에서 **시퍼런** 바닷물이 철썩거리고 있었다. 늘 걷던 길이 오늘따라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곧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여기 머문 지도 어느새 삼 년이 되어 간다. 돌이켜 보면 **복된** 나날이었다. 이웃들과 매일 **정답게** 인사를 주고받았으며, 어디서든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 ① ‘시퍼런’은 접두사 ‘시-’가 형용사 어근 앞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② ‘새롭게’는 접두사 ‘새-’가 형용사 어근 앞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③ ‘복된’은 접미사 ‘-되다’가 명사 어근 뒤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④ ‘정답게’는 접미사 ‘-답다’가 명사 어근 뒤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 ⑤ ‘사랑스러운’은 접미사 ‘-스럽다’가 명사 어근 뒤에 붙어 형성된 말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36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우리는 봄이 어서 오기를 기다렸다.

㉡ 나는 그가 범인이 아니었음에 안도했다.

㉢ 우유를 마신 아이가 마루에서 잠들었다.

- ① ㉠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② ㉡에는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④ ㉢과 달리 ㉠에는 안긴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 ⑤ ㉢과 달리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37. <보기>는 중세 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자료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太子 | 앓겨 므스매 너교되 비들 만히 니르면 몸 삶가 하야 니오되 **금으로** 짜해 석로물 **뽕** 업게 하면 이 東山을 프로리라 須達이 니오되 **니르산 양으로** 호리이다 太子 | 니오되 내 룡담하더라 須達이 니오되 太子人 法은 **거죽마를** 아니하시는 거시니 구쳐 프르시리이다

[현대어 풀이]

태자가 아껴 마음에 여기되 ‘값을 많이 이르면 못 살까.’ 하여 이르되 “금으로 땅에 깔음을 틈 없게 하면 이 동산을 팔겠다.” 수달이 이르되 “이르신 양으로 하겠습니다.” 태자가 이르되 “내가 농담하였다.” 수달이 이르되 “태자의 도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니 하는 수 없이 파실 것입니다.”

- ① ‘금으로’와 ‘양으로’를 통해 모음 조화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부사격 조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뽕’을 통해 단어 첫머리에 자음이 연속하여 올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니르산’을 통해 주체인 수달을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太子人’을 통해 ‘人’이 관형격 조사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거죽마를’을 통해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할 때 이어적기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8~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표준 발음법 제5장에서는 ‘음의 동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동화는 음운 변동 중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에 속한다. 대표적인 예로 ‘ㄱ, ㄷ, ㄴ’이 비음 ‘ㄴ, ㄹ’ 앞에서 각각 동일한 조음 위치의 비음인 ‘ㅇ, ㄴ, ㄹ’으로 조음 방법이 바뀌는 비음화, ‘ㄴ’이 ‘ㄱ’의 앞 또는 뒤에서 동일한 조음 위치의 유음인 ‘ㄱ’로 조음 방법이 바뀌는 유음화가 있다. 예컨대 ‘만물[만물]’에서는 비음화가 일어나고, ‘실내[실래]’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한편 동화를 일으키는 음운은 동화음, 동화음의 영향을 받는 음운은 피동화음이라고 하는데, 동화는 동화의 방향이나 동화의 정도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동화의 방향에 따라서는 동화음이 피동화음에 선행하는 동화, ㉠ 동화음이 피동화음에 후행하는 동화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동화의 정도에 따라서는 ㉡ 피동화음이 동화음과 완전히 같아지는 동화, 피동화음이 동화음의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과 같은 일부 특성만 닮는 동화로 나눌 수 있다. 예컨대 ‘실내’에서는 동화음이 피동화음에 선행하며 피동화음이 동화음과 완전히 같아지는 동화가 일어나지만, ‘만물’에서는 동화음이 피동화음에 후행하며 피동화음이 동화음의 조음 방법만 닮는 동화가 일어난다.

[A]

(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1. 표기 일람

(1) 모음

ㅏ	ㅓ	ㅗ	ㅛ	ㅜ	ㅠ	ㅡ	ㅝ	ㅞ
a	o	u	i	ae	yeo	yo	wa	

•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2) 자음

ㄱ	ㄷ	ㅈ	ㅊ	ㅌ	ㅍ	ㅇ	ㄹ
g	d	b	p	s	m	ng	r, l

• 'ㄱ, ㄷ, ㅈ'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2. 표기상의 유의점

-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는다.
-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38. (가)와 (나)를 참고해 <보기>의 ㉠~㉣를 로마자로 표기하려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 대관령[대:꺠령]에서 ㉡ 백마[뵁마] 교차로까지는 멀다.
- ㉢ 별내[별래] 주민들은 ㉣ 삼목묘[삼몽묘]를 구입하였다.
- 작년에 농장 주인은 ㉤ 물란리[물랄리]로 피해를 보았다.

* ㉠~㉣는 지명임.

- ① ㉠: 초성 위치에서만 유음화가 일어나 [대:꺠령]으로 발음되므로 'Dae:kwallyeong'로 표기해야 한다.
- ② ㉡: 초성 위치에서만 비음화가 일어나 [뵁마]로 발음되므로 'Baengma'로 표기해야 한다.
- ③ ㉢: 초성 위치에서만 유음화가 일어나 [별래]로 발음되므로 'Byeollae'로 표기해야 한다.
- ④ ㉣: 초성 위치와 종성 위치에서 비음화가 일어나 [삼몽묘]로 발음되므로 'sammongmyo'로 표기해야 한다.
- ⑤ ㉤: 초성 위치와 종성 위치에서 유음화가 일어나 [물랄리]로 발음되므로 'mullalri'로 표기해야 한다.

39. [A]를 바탕으로 <보기>에서 일어나는 동화의 양상을 분석할 때, ㉠과 ㉡이 모두 일어나는 단어만을 골라 묶은 것은?

< 보 기 >

곤란[꺠란]	국민[꺠민]	읍내[읍내]
입문[입문]	칼날[꺠랄]	

- ① 곤란, 입문
- ② 국민, 읍내
- ③ 곤란, 국민, 읍내
- ④ 곤란, 입문, 칼날
- ⑤ 국민, 입문, 칼날

[40~42] (가)는 인터넷 블로그이고, (나)는 텔레비전 생방송 뉴스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환경 파수꾼 '구르미'의 블로그

읽을거리 **생각 나누기** 자료 더하기 일상 기록

북극곰은 지구 온난화가 싫어요

구르미
2021.02.06. 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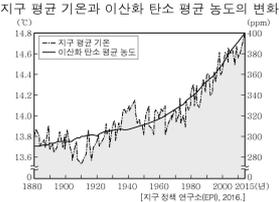
여러분은 '겨울'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추위? 얼음? 북극?
오늘은 다큐멘터리 '북극곰의 오늘과 내일'을 보고 든 생각에 대해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자 해요.
지구 온난화로 북극곰의 삶의 터전이 줄어들고 있어요.



옆의 사진은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북극곰의 오늘과 내일'에서는 옆의 사진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북극곰이 멸종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북극곰을 힘들게 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래프를 보시면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과 이산화 탄소 농도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산화 탄소의 배출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일상에서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기,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대체 에너지 개발하기 등이 있어요.





이 영상은 '북극곰의 오늘과 내일' 홍보 영상인데, 다큐멘터를 찾아서 시청하시면 북극곰의 아픔을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자료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지구_온난화 #북극곰_멸종_위기 #이산화_탄소_배출_줄이기

댓글 7 **공감 16**

사랑이 북극곰에게 미안하네요. 이제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게 좋겠죠? ①

↳ **구르미** 그럼요. 저도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로 결심했어요.

초록곰 저도 이산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www.ooo.go.kr 여기서 이산화 탄소 배출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②

↳ **구르미** 방문 감사합니다. 저도 주변 분들과 공유할게요.

밤불이 대체 에너지 개발하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 **구르미** 감사해요. 수정할게요.

몽돌이 그래프의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사진 속 작은 얼음 조각마저 사라져 북극곰은 살 곳이 없어지고 말겠어요. ㅠ.ㅠ

(나)



진행자: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전국에 두 달째 가뭄이 이어지면서 여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서요?

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현장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 기자: 취재한 자료 영상을 보시면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것이 저수지 바닥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진행자: 가뭄이 이렇게나 심각하군요. 그에 따라 피해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윤 기자: 가뭄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농민 한 분을 만나 봤습니다. 인터뷰 영상 보시겠습니다.



40.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정보 생산자 간에 면 대 면 소통을 통해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정보 수용자를 고려하여 격식을 갖춘 말투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특정 기호를 앞에 붙여 열거한 말들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핵심 어구를 파악할 수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정보 수용자를 특정인으로 한정지어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정보 생산자와 수용자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정보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텔레비전 뉴스, 인터넷 블로그 등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구체적 형태를 매체 자료라고 한다. 매체 언어는 음성,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의 양식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매체 자료의 수용자는 이러한 복합 양식적인 매체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그 의미는 생산자와 수용자가 놓여 있는 맥락 속에서 생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매체 자료의 수용은 생산자의 의도나 관점, 수용자의 관점이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매체 자료의 수용자는 창의적 생산자가 되기도 하면서 사회적 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

- ① (가)에서 그래프와 동영상 등을, (나)에서 문자와 음성 등을 활용한 것은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적 특성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몽돌이'가 쓴 댓글은 수용자가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적 특성을 고려하여 의미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③ (가)에서 '구르미'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든 생각을 블로그에 올려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눈 것은 매체 자료의 수용자가 창의적 생산자로서 사회적 소통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나)에서 진행자와 윤 기자가 가뭄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은 문제의식을 수용자와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매체 자료를 생산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나)에서 진행자가 윤 기자에게 현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한 것은 생산자들 간에 놓여 있는 맥락이 같아도 관점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42.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매체 언어의 특성에 주목하여, 블로그를 통해 제시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② ㉠: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의 목적과 관련하여, 블로그에 제시된 정보를 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 ③ ㉠: 매체의 사용 습관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블로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하고 있다.
- ④ ㉡: 블로그에 제시된 의견에 동의를 나타내고 매체의 기능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추가하고 있다.
- ⑤ ㉡: 블로그에 제시된 주장의 타당성을 비판하고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43~45] (가)는 학생들이 학생회장 후보자 홍보 동영상 제작 준비를 위해 휴대 전화 메시저로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이야기판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회장 후보자 지원단 대화방 (5명)

경호 애들아, 대화방 열었어. 서로 즉각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대화 내용이 남아 있어 그 내용을 참고하며 의견을 나눌 수도 있어서 좋을 것 같아.

한신 학생회장 후보자 홍보 동영상 제작에 대해 이야기하자는 거지?

경호 응, 맞아. 의견 줄래?

소희 누리 소통망에 올릴 홍보 동영상은 우리의 슬로건인 '소통과 화합'을 잘 강조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 전에 만든 포스터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아서 아쉬워.

연주 좋은 생각이야.

한신 누가 이야기판 만들래? 나한테 이야기판 양식이 있어. 공유할게.

파일 전송: 이야기판 양식.hwp(15.0KB)

지섭 내가 이야기판을 만들어 볼게. 그럼 지금부터 동영상을 어떻게 구성할지 의견을 줘.

소희 ㉠ 슬로건인 '소통과 화합'이 잘 드러나도록 소통에 관한 장면과 화합에 관한 장면을 하나씩 구성하자.

연주 ㉡ 소통 장면에서는 경청하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하고, 화합 장면에서는 여럿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자.

한신 ㉢ 학교에 바라는 점을 말하는 인터뷰와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유를 밝히는 인터뷰를 각각 다른 장면으로 제시하자.

지섭 ㉣ 공약 사항을 자막으로 제시할 때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효과음을 넣자.

경호 좋아. ㉤ 내레이션으로 자막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자.

전송

(나)

	장면	장면 설명
S#1		(우측 상단에 슬로건 제시) 학생들과 함께, 후보자가 힘찬 발걸음으로 등교한다. [자막] 기호 ×번 김□□
S#2		후보자가 귀 옆에 양손을 가져다 댄다. [효과음] (자막이 나올 때) 빠밤 [자막] 학급별 소통함 제작 [내레이션]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겠습니다.
S#3		세 학생이 어깨동무를 한다. [효과음] (자막이 나올 때) 빠밤 [자막] 한마음 축제 개최 [내레이션] 축제를 통해 하나가 되는 ○○고를 만들겠습니다.
S#4		학교에 바라는 점을 말하는 한 학생의 인터뷰를 제시한다.

S#5



투표하는 손을 보여 준다.

[자막] 당신의 한 표를 기호 ×번에 행사하세요.

43. (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신'은 동영상에 게재되는 매체의 정보 유통 방식을 언급하며 동영상의 구성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 ② '소희'는 매체 언어의 표현 전략을 비교하여 매체 언어를 새롭게 표현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연주'는 문자와 그림말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의미를 제시하여 동영상 제작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경호'는 휴대 전화 메시저의 특성을 언급하며 해당 매체로 대화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⑤ '지섭'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매체의 정보 전달 효과를 고려하여 동영상 제작의 절차와 역할 분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44. ㉠~㉤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45. 다음은 (나)에 대한 검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를 수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야기판 검토 결과>

S#1	후보자의 힘찬 발걸음을 부각할 수 있는 배경 음악이 필요함.
S#2 ~ S#4	후보자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막에 제시되어야 함.
S#4	인터뷰 내용의 전달 효과를 높여야 함.
S#5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인상적으로 제시하며 마무리해야 함.

- ① S#1에 밝고 역동적인 느낌의 음악을 배경 음악으로 제시한다.
- ② S#1의 자막을 '기호 ×번 김□□와 함께 새로운 학교생활이 시작됩니다.'로 수정한다.
- ③ S#2 ~ S#4에 S#1처럼 화면 우측 상단에 '소통과 화합'이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 ④ S#4에 인터뷰의 핵심 내용을 나타내는 말들을 자막으로 제시한다.
- ⑤ S#5에 학생회장 후보자가 자막을 힘주어 읽는 내레이션을 추가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과, 휴게 시설 정비 및 확충이 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원그래프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이를 근거로 (나)의 2문단에서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보고서의 작성 방법을 이해한다.

‘III’에서 조사 결과를 제시할 때, 상위 항목인 ‘2. ○○숲 공원에 대한 인식’의 하위 항목으로 ‘가. ○○숲 공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 ‘나. ○○숲 공원 개선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가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 간의 위계를 고려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점검 결과에서 (가)가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과를 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I’에서 조사의 목적을 ○○숲 공원 이용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앞서 제시된 ○○숲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결과를 표기한 것은 적절하다. ② ‘II’에 조사 계획을 제시하면서 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기준을 준수하였다고 결과를 표기한 것은 적절하다. ④ ‘III-2-나’에서 ○○숲 공원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원 이용과 관련해 개선되기를 바라는 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할 때, 각 항목에 응답한 주민의 비율을 나타내기 위해 원그래프를 사용한 것은 조사 항목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보고서에서 그래프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과를 표기한 것은 적절하다. ⑤ 현재 보고서에는 참고 문헌 항목을 설정하여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과를 표기한 것은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점검하고 고쳐 쓴다.

초안과 비교하였을 때, [A]에서는 ○○숲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의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조정해 제시하면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필자의 견해를 함께 제시했다.

[오답풀이] ④ 초안과 비교하였을 때, [A]에서 보고서에 사용된 주요 개념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 부분은 없다. ⑤ 초안과 비교하였을 때, [A]에서 맥락에 적합하지 않은 담화 표지를 수정한 부분은 없다.

[언어와 매체]

35	②	36	②	37	③	38	③	39	①
40	③	41	⑤	42	④	43	④	44	③
45	⑤								

35. [출제의도] 형용사 형성 과정을 이해한다.

‘새롭게’는 어근 ‘새’ 뒤에 접미사 ‘-롭다’가 붙어 형성된 말 ‘새롭다’의 활용형이므로 ㉠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시퍼런’은 어근 ‘피렇’ 앞에 접두사 ‘시-’가 붙어 형성된 말 ‘시퍼렇다’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③ ‘복된’은 어근 ‘복’ 뒤에 접미사 ‘-되다’가 붙어 형성된 말 ‘복되다’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④ ‘정답게’는 어근 ‘정’ 뒤에 접미사 ‘-답다’가 붙어 형성된 말 ‘정답다’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⑤ ‘사랑스러운’은 어근 ‘사랑’ 뒤에 접미사 ‘-스럽다’가 붙어 형성된 ‘사랑스럽다’의 활용형으로, ㉠에 해당하는 예이다.

36.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새를 파악한다.

㉠에서 ‘그가 범인이 아니었음’은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여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가 범인이

아니었음’ 외에는 ㉠에 다른 안긴문장이 없으므로, ㉠에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에서 ‘범이 어서 오기’는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하여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③ ㉠에서 ‘우유를 마신’은 ‘아이’를 수식하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④ ㉠의 안긴문장 ‘우유를 마신’ 속에는 부사어가 없다. ㉠의 안긴문장 ‘범이 어서 오기’ 속에는 ‘오기’를 수식하는 부사어 ‘어서’가 있다. ⑤ ㉠의 안긴문장 ‘그가 범인이 아니었음’에는 주어 ‘그가’가 드러나 있고, ㉠의 안긴문장 ‘우유를 마신’에는 주어 생략되어 있다.

37.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을 파악한다.

‘니르산’을 통해 주제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때 높임의 대상은 수달이 아니라 태자이다.

[오답풀이] ① ‘금으로’와 ‘양으로’를 통해, ‘금으로’와 ‘양으로’에 쓰인 부사격 조사는 중세 국어에서 앞 음절 모음이 음성 모음일 때는 음성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으로’로, 양성 모음일 때는 양성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인 ‘으로’로 달리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뽕’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ㅃ’과 같이 단어 첫머리에 자음이 연속하여 올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太子’이 ‘태자’로 풀이됨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는 체언 ‘太子’에 관형격 조사로 ‘ㅅ’이 결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거죽말’을 통해 중세 국어에서 체언 ‘거죽말’에 조사 ‘을’이 결합할 때 앞말의 받침이 뒤의 초성으로 연음되는 것을 표기에 반영하는 방식인 이어적기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8. [출제의도] 음운 변동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를 이해한다.

‘별내’[별래]에서는 초성 위치에 있는 ‘ㄴ’이 ‘ㄹ’의 뒤에서 동일한 조음 위치의 유음인 ‘ㄹ’로 바뀌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나)를 고려할 때, ‘별내’[별래]의 로마자 표기는 ‘Byeollae’이다.

[오답풀이] ① ‘대관령’[대궐령]의 로마자 표기는 ‘Daegwallyeong’이다. ② ‘백마’[백마]에서는 초성 위치가 아닌 종성 위치에서 비음화가 일어난다. ④ ‘삼목도’[삼목도]에서는 두 종성 위치에서 비음화가 일어난다. ⑤ ‘물날리’[물날리]의 로마자 표기는 ‘mullalli’이다.

39. [출제의도] 동화의 유형을 이해한다.

‘곤란’[글:란]은 동화음 ‘ㄹ’이 피동화음 ‘ㄴ’에 후행하는 동화가 일어나며, 피동화음 ‘ㄴ’이 ‘ㄹ’로 바뀌어 동화음 ‘ㄹ’과 완전히 같아지는 동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입문’[임문]은 동화음 ‘ㄹ’이 피동화음 ‘ㅃ’에 후행하는 동화가 일어나며, 피동화음 ‘ㅃ’이 ‘ㄹ’로 바뀌어 동화음 ‘ㄹ’과 완전히 같아지는 동화가 일어난다.

40. [출제의도] 매체의 유형과 그 특성을 이해한다.

(가)의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에서 작성자는 몇몇 특정 핵심 어구의 앞에 기호를 붙여 열거하고 있다. 해당 기호를 통해 정보 수용자는 전달되는 정보의 핵심 어구를 파악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④ (나)는 다수의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며, 다수의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한다는 것은 매체로서 텔레비전의 특징이다.

41.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생산과 수용에 대해 이해한다.

(나)에서 진행자는 현장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자에게 요청하고 있다. 진행자와 기자는 가문에 따른 피해의 상황과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진행자와 기자는 같은 맥락 속에 있고, 문제 상황에 대한 관점이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② (가)의 게시글에 ‘몽돌이’가 작성한 댓글은 그래프, 사진, 문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미를 구성한 것이다. ④ (나)의 매체 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진행자와 기자가 가문의 심각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강조한 것은 수용자와 문제의식을 공유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42.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초록꿈’은 ㉠에서 블로그 게시글에 제시된 의견에 동의할 나타내고, 하이퍼링크 기능을 통해 정보를 제시하였다.

[오답풀이] ① ‘사랑이’가 쓴 댓글의 의문문은 블로그 게시글에 제시된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43. [출제의도] 매체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한다.

‘경호’는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남아 있는 대화 내용을 참고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휴대 전화 메신저의 특성을 언급하며 휴대 전화 메신저를 통한 대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한신’의 말에서 동영상이 게재되는 매체의 정보 유통 방식을 언급한 부분은 없다. ② ‘소희’가 포스터와 비교하며 새로 제작하는 동영상에서 슬로건이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지만, 표현 전략을 비교하거나 새롭게 표현하는 방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⑤ ‘지섬’이 이 야기판 제작을 위해 대화방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고 있지만, 대화가 이루어지는 휴대 전화 메신저의 정보 전달 효과를 고려하며 동영상 제작의 절차와 역할 분담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44.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생산에 대해 이해한다.

(나)의 S#4에 학교에 바라는 점을 말하는 인터뷰는 제시되어 있으나, (나)에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유를 밝히는 인터뷰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나)의 S#2는 소통에 관한 장면, S#3은 화합에 관한 장면이다. ② 소통에 관한 장면인 (나)의 S#2에는 후보자가 귀 옆에 양손을 가져다대는 모습으로 경청하는 태도가, 화합에 관한 장면인 (나)의 S#3에는 세 학생이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으로 여럿이 함께 하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④ ‘학급별 소통할 제작’이라는 공약이 자막으로 제시된 (나)의 S#2와 ‘한마음 축제 개최’라는 공약이 자막으로 제시된 S#3에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자막이 나올 때 효과음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⑤ (나)의 S#2와 S#3에서 내레이션을 통해 자막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수정·보완한다.

S#5에서 자막의 내용을 힘주어 읽는 것과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인상적으로 제시하는 효과는 관계가 없다.

[오답풀이] ① 밝고 역동적인 느낌의 음악을 사용하면 후보자의 힘찬 발걸음을 부각할 수 있다. ② 자막에 ‘새로운 학교생활이 시작됩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후보자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③ 슬로건인 ‘소통과 화합’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슬로건을 강조할 수 있다. ④ 인터뷰의 핵심 내용을 나타내는 말을 자막으로 제시하면 내용 전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제 1 교시

13

[35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언의 어간에 여러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현상을 용언의 활용이라 한다.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가리키고, 어미는 어간 뒤에 결합하여 여러 가지 문법적 의미를 더해 주는 요소를 가리킨다. 어미는 그것이 나타나는 자리에 따라 어말 어미와 선어말 어미로 나눌 수 있다. 어말 어미는 용언의 맨 뒤에 오는 어미이고,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나타나는 어미이다. 가령, “나는 물건을 들었다.”라는 문장에서 ‘들었다’는 어간 ‘들-’에 선어말 어미 ‘-었-’과 어말 어미 ‘-다’가 결합된 용언이다. 어간과 어미의 결합 관계를 기호화하여 어간을 X, 선어말 어미를 Y, 어말 어미를 Z라고 할 때, 어간에 하나의 어미만 결합된 용언은 ㉠ X+Z로 표현될 수 있고, 어간에 둘 이상의 어미가 결합된 용언은 ㉡ X+Y+Z 혹은 ㉢ X+Y₁+Y₂+Z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어말 어미는 문법적 기능에 따라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뉜다. 종결 어미는 문장의 끝에 위치하여 한 문장을 끝맺는 기능을 하며,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는 문법적 기능을 하기도 한다. 연결 어미는 두 문장을 나열, 대조 등의 의미 관계로 이어 주는 ㉣ 대등적 연결 어미,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원인, 조건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지도록 이어 주는 ㉤ 종속적 연결 어미,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이어 주는 ㉥ 보조적 연결 어미로 나눌 수 있다. 전성 어미는 용언이 서술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품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것으로, 명사형 전성 어미, 관형사형 전성 어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선어말 어미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거나 문장의 시제를 표현하는 것과 같은 문법적 기능을 한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다음 주에 있을 전국 학생 토론 대회 준비는 마쳤니?
라온: 아직이요. 내일까지는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해람: 사실 이번 주제는 저희들끼리 준비하기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방금 교무실로 들어가신 선생님께 조언을 구해 보렴.
라온: 창가 쪽에서 계신 분 말씀이죠?
해람: 아, 수업 종이 울렸네. 다음 시간에 다시 오자.

- ① ‘끝내겠습니다’는 ㉢에 속하며, 이때 Z는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군.
- ② ‘준비하기’는 ㉠에 속하며, 이때 Z는 용언을 명사처럼 기능하게 하고 있군.
- ③ ‘들어가신’은 ㉢에 속하며, 이때 Y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군.
- ④ ‘계신’은 ㉠에 속하며, 이때 Z는 용언을 관형사처럼 기능하게 하고 있군.
- ⑤ ‘울렸네’는 ㉢에 속하며, 이때 Y₂는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기능을 하고 있군.

36. <보기>의 ㉦ ~ ㉨를 윗글의 ㉠ ~ ㉢로 바르게 분류한 것은?

< 보 기 >

-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고 있다. ㉦
- 김이 습기를 먹어 녹눅해졌다. ㉧
- 형은 빵을 먹고 동생은 과자를 먹었다. ㉨
- 우리는 상대방에게 한 꼴을 먹고 당황했다. ㉩
- 그는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겉을 먹어 버렸다. ㉪

- | | | | |
|---|------|------|------|
| | ㉠ | ㉡ | ㉢ |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37. 다음의 ㉠에 해당하는 것을 ㉡ ~ ㉤ 중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원격 수업에서 활용하기 위해 우리말 음성을 한글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아래는 이 프로그램의 개발자가 쓴 일지의 일부이다.

○ 프로그램의 원리
 사용자가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자료를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하면, 프로그램은 그 발음에 나타난 음운 변동 현상을 분석해 본래의 표기된 자료로 출력한다.

○ 확인된 문제
 프로그램이 입력된 발음을 본래의 자료로 출력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아래의 잘못 출력된 사례에서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자료와 출력된 자료를 대조해 ㉡ 교체, ㉢ 탈락, ㉣ 첨가, ㉤ 축약 중 ㉠ 프로그램이 분석하지 못한 음운 변동 현상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다.

표기된 자료	표준 발음	출력된 자료
끊어지다	[끄너지다]	끄너지다
없애다	[업:쌌다]	업쌌다
피붙이	[피부치]	피부치
웃어른	[우더른]	우더른
암탉	[암탁]	암탁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38. <보기>는 학생들이 작성한 탐구 보고서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 탐구 개요
학생들은 형태가 동일한 두 형태소가 하나는 어근, 하나는 접사로 사용되는 경우 이를 구분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례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결과를 분석하고 추가 예시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사례

1. 마당 **한**가운데 꽃이 폈다. (㉠)
2. 그가 이 책의 지은**이**이다. (㉡)
3. 커다란 **알**밤을 주웠다. (㉢)

◦ 학생들의 반응

사례	접사	어근
㉠	15	10
㉡	5	20
㉢	5	20

(단위: 명)

◦ 결과 분석 및 추가 예시 자료 제시

[가]

- ① '사례 1'에 대해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다. 이에 따라 'A 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쓰인 예로 '한번'을 제시한다.
- ② '사례 1'에 대해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다. 이에 따라 'B 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쓰인 예로 '한복판'을 제시한다.
- ③ '사례 2'에 대해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다. 이에 따라 'C 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쓰인 예로 '먹이'를 제시한다.
- ④ '사례 2'에 대해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다. 이에 따라 'D 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쓰인 예로 '미단이'를 제시한다.
- ⑤ '사례 3'에 대해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다. 이에 따라 'E 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쓰인 예로 '알사탕'을 제시한다.

39. <보기>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불휘 기븐 남근 **보**락매 아니 뵈썩 곳 도코 여름 **하**느니
 식미 기븐 **므**른 **ㄹ**래 아니 그썩썩 **내**히 이러 **바**래래 가느니

[현대어 풀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이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치므로 **내(川)**가 이루어져 **바다**에 가느니.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제2장> -

- ① '불휘'와 '식미'를 보니, '이'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동일한 형태의 주격 조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보'락매'와 'ㄹ'래'를 보니, '애'가 현대 국어의 부사격 조사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하'느니'를 보니, '하'가 현대 국어와 다른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군.
- ④ '므'른'과 '바'래래'를 보니, 앞 형태소의 끝소리를 다음 형태소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내'히'를 보니, 체언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할 때 체언의 끝소리 'ㅎ'이 연음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군.

[40 ~ 42] (가)와 (나)는 인쇄된 잡지에 실린 광고이고, (다)는 인터넷에 올려진 광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다 생물을 위협하는 가장 가벼운 총

전 세계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빨대 한 해 800만 톤. 사람들에게겐 편리한 작은 빨대 하나지만 바다 생물들에겐 생명의 위협이 됩니다.

① 이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여서 바다 생물과 함께 지구 환경도 살릴 때입니다.



(나)

'미세 제로 공기 청정기'로 미세먼지 탈출하세요!

CADR(시간당 공기 정화 능력) 95m³/h
 CADR(Clean Air Delivery Rate)은 시간당 공기 정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기존 제품보다 공기 청정 기능에 있어 두 배 높은 CADR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평가단 만족도 (별 5개 만점)
 평점: ★★★★★ 다른 제품보다 저렴하네요. ㉡㉢
 - 닉네임 '하늘 나무' 님
 평점: ★★★★★ 디자인이 마음에 쏙 들어요. ㉠
 - 닉네임 '좋은 열매' 님



(다)

생활

건강 기능 식품 전문 기업 ○○사, '○○헬스' 출시

▶ 감태 추출물 활용하여 불면증 개선에 효과적
 하루 한 알로 피로 회복 효과까지

건강 기능 식품 전문 기업 ○○사는 '○○헬스'를 이번 달 22일 전국 매장에서 동시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받은 이 제품은 숙면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 효과도 있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헬스의 복용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숙면을 취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 효과는 감태 추출물 때문이다. 또 ○○헬스에는 비타민 B도 함유되어 있어 ○○헬스 한 알을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불면증 개선과 더불어 피로 회복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 그래서 ○○헬스는 바쁜 직장인과 학생들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사 홍보 담당자는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의 모든 소비자들이 ○○헬스를 필수적인 식품으로 여기도록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더 나아가 ○○헬스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므로, 곧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은 이를 복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보 김△△ 기자(kim@○○news.co.kr)

전체 댓글 2개 최근 순

↳ 하루 중 언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09:05

↳ 제가 요즘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정말 기대되네요! 08:01

40.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는 글자 크기의 차이가 드러나므로 제목과 구체적인 정보를 구분하여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문자 언어와 이모티콘이 함께 나타나므로 수용자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③ (나)와 달리 (다)는 실시간으로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수용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④ (다)와 달리 (가)는 동일한 이미지의 나열이 드러나므로 내용과 관련된 수용자의 가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⑤ (다)와 달리 (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수용자에게 정보에 대한 선택적 접근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41. <보기>를 읽은 학생이 (가) ~ (다)에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광고는 대중을 설득하는 활동으로서, 목적에 따라 상품 판매의 촉진을 위한 상업 광고와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공익 광고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광고는 사실적인 정보와 주관적인 평가를 함께 활용하여 설득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에서는 상품 판매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기사문 형태의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표제와 부제, 핵심 내용을 요약한 전문 등을 갖춰 일반적인 기사문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또한 기사문 형태의 광고는 언론사 명칭과 작성자 이름을 제시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부각하고자 하는데, 이를 접한 대중들은 제시된 내용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

- ① (가)는 환경 문제의 대처와 관련된 가치의 실현을 위해 대중을 설득하고 있으므로 공익 광고에 속하겠군.
- ② (나)는 특정 제품의 기능을 제시하여 제품의 판매가 촉진되도록 대중을 설득하고 있으므로 상업 광고에 속하겠군.
- ③ (나)에서 특정 제품과 관련된 용어의 의미와 기능적 특징을 제시한 부분은 사실적인 정보와 주관적인 평가를 함께 활용한 것이겠군.
- ④ (다)에서 특정 언론사 명칭과 기사 작성자 이름이 제시된 부분을 보면 광고 내용의 신뢰성을 부각하려 했음을 알 수 있겠군.
- ⑤ (다)는 특정 제품의 출시 정보와 효능에 관한 내용을 표제와 부제, 전문의 형식을 갖춰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사문 형태의 광고에 해당하겠군.

42. ㉠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보조사를 사용하여 '살릴'의 대상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 수사사를 사용하여 서로 다른 대상의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 ③ ㉢: 의존 명사를 사용하여 '감태 추출물'이 '효과'의 원인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접속 부사를 사용하여 앞 문장과의 인과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대명사를 사용하여 앞에서 언급한 '판매될' 제품을 지시하고 있다.

[43 ~ 45] (가)는 학생들이 발표를 위해 만든 온라인 카페이고, (나)는 발표 자료의 수정을 위해 휴대 전화 메시지로 나는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수 의자 발표 모듬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	발표 자료 제작을 위한 역할 분담	지혜	4월 2일
2	기사문(장수 의자 소개, 설치 현황 통계)	혜영	4월 3일
3	장수 의자 이용 방법 동영상	지오	4월 4일
4	장수 의자 사진, 어르신 인터뷰 동영상	윤일	4월 7일
5	장수 의자 홍보 그림, 개선 요구 사항 통계	호상	4월 8일
6	수정 회의 안내	지혜	4월 9일

공지 사항
6. 수정 회의 안내 작성자: 지혜

각자 자료 조사 열심히 해 줘서 고마워.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해 보았어.

슬라이드 1 - 발표 제목

- ▶ 장수 의자
- ▶ 홍보 문구

제목과 관련된 홍보 문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로 달아 줘!

슬라이드 2 - 제작 배경 및 제작 목적

- ▶ 어느 경찰관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됨.
- ▶ 어르신 배려 및 무단 횡단 방지를 목적으로 함.

슬라이드 3 - 설치된 위치 및 이용 방법

- ▶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에 설치됨.
- ▶ 접혀 있는 의자를 내린 후 앉음.

슬라이드 4 - 설치 현황 및 개선 요구 사항

- ▶ 지역별 설치 현황
- ▶ 어르신 반응에 따른 개선 요구 사항

왼쪽 '발표 자료'에 있는 슬라이드 1~4를 살펴보고 오늘 밤에 모듬 대화방에서 수정 회의를 진행하자!

(나)

발표 모듬 대화방(5명)

수정 회의 시작합니다! 지혜

지오: 우선 각 슬라이드의 제목에서 중심 화제를 이어 주는 말이 있는 경우 이를 중심 화제의 글자 크기보다 작게 하여 중심 화제를 부각할 필요가 있겠어. 더불어 중심 화제들의 제시 순서에 맞게 번호를 다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둘 다 반영할게. 지혜

참, 혜영이는 기사들을 좀 더 찾아봐 줄 수 있을까? 제작 배경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려면 다양한 내용이 필요해서. [A]

혜영: 그러고 보니 기사 내용의 대부분이 제작 목적에 대한 설명이구나! 알았어, 더 찾아볼게.

호상: 장수 의자가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에 설치된 거 맞지? 사진이 너무 흐릿해서 잘 안 보여.

윤일: 사진 파일 전송: 장수 의자 위치.JPG(8.1MB)

이게 원본인데 확인해 볼래? [B]

이게 더 잘 보인다. 신호등 기둥에 설치된 게 확실하네. 고마워! 지혜

근데 윤일이가 올린 동영상은 슬라이드에 활용하기는 했는데, 여기에도 어르신께서 장수 의자에 앉아 계신 모습이 담겨 있어서 지오가 올린 동영상과 내용이 겹쳐. 함께 쓰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호상 지오가 올린 동영상에는 어르신들께서 의자를 직접 내리고 앉으시는 모습까지 담겨 있으니 이용 방법을 제시할 때는 이걸 활용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지혜 그 부분을 강조하면 훨씬 효과적이겠다.

호상 그런데 내가 동영상 편집 방법을 잘 모르는데.....

지혜 그러면 편집은 내가 할게.

지혜 정말? 그럼 내가 너 대신 발표를 할게. 슬라이드를 제작한 사람이 내용의 흐름에 더 익숙할 테니까.

호상 고마워. 잘 부탁해!

혜영 그러면 윤일이가 올린 동영상을 글과 그림으로 정리해서 어르신 반응에 따른 개선 요구 사항을 제시할 때 활용하면 좋겠어. 동영상은 또 제시할 필요는 없잖아.

윤일 그게 좋겠다. 할아버지 말씀은 글로 정리하고, '무단 횡단 금지'가 '잠시 쉬어 가세요.'보다 더 크게 장수 의자에 적혀 있어서 인짱다고 하신 할머니 말씀은 글과 사진으로 정리할게. 내가 찍어 올린 사진 중에 할머니의 말씀을 뒷받침할 만한 사진이 있으니, 이걸 함께 제시하면 할머니의 개선 요구 사항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지혜 좋은 생각이야. 반영할게.

호상 참, 그런데 호상이 올린 두 자료의 출처가 모두 없더라. 통계 자료 출처는 내가 검색해서 찾아야. 그런데 장수 의자 홍보 그림의 출처는 못 찾았어. 혹시 그림을 찾은 인터넷 주소 좀 알려 줄래?

지혜 아, 미안해. 그 출처는 이거야. 여기 주소 보낼게. <http://www.◇◇.go.kr>

지오 그런데 개선 요구 사항이 표로 제시되어 있는데 워드 그래픽으로 바꿔 제시하는 게 시각적으로 효과적일 것 같아.

지혜 응, 그렇게 해 볼게.

43. (나)를 바탕으로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를 통해 (가)의 '최신 글 보기' '2'번 게시물에 담겨 있는 기사 문에는 장수 의자 제작 목적보다 제작 배경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 ② [B]를 통해 (가)의 '최신 글 보기' '4'번 게시물에 담겨 있는 사진은 (나)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된 사진보다 화질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③ [C]를 통해 (가)의 '최신 글 보기' '3'번 게시물에 담겨 있는 동영상에는 어르신께서 장수 의자에 앉아 계신 모습이 등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④ [D]를 통해 (가)의 '최신 글 보기' '1'번 게시물에 담겨 있는 역할 분담에는 '지혜'와 '호상'이 각각 슬라이드 제작자와 발표자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E]를 통해 (가)의 '최신 글 보기' '5'번 게시물에 담겨 있는 장수 의자 홍보 그림에는 (나)에서 제시된 인터넷 주소인 출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4. (나)를 고려하여 <보기 1>을 <보기 2>로 수정했다고 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4. 설치 현황 및 개선 요구 사항

설치 현황

개선 요구 사항

순위	내용	인원
1	장수 의자 수량 확대	52명
2	장수 의자와 도로의 안전 거리 확보	32명
3	장수 의자 좌석 폭 확장	27명

자료 출처: <http://www.□□news.com> 자료 출처: <http://www.△△.go.kr>

〈보기 2〉

4. 설치 현황 및 개선 요구 사항

① 설치 현황 ② 개선 요구 사항

장수 의자 덕분에 편해졌어요. 그런데 설치된 곳이 별로 없어요. 더 많이 설치해 주었으면 해요.

장수 의자와 도로의 안전 거리 확보 장수 의자 수량 확대

장수 의자 좌석 폭 확장 장수 의자 수량 확대

자료 출처: <http://www.□□news.com> 자료 출처: <http://www.△△.go.kr>

- ① ㉠ ② ㉡ ③ ㉢ ④ ㉣ ⑤ ㉤

45. 다음은 ㉠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에 들어갈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오: 홍보 문구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면 좋을까?

호상: 장수 의자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면 좋을 것 같아.

혜영: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것도 좋지.

지혜: 호상님과 혜영님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이제부터 홍보 문구를 만들어 보자.

㉠

- ① 호상: 나의 작은 관심, 지역의 큰 기쁨. 장수 의자에 대한 관심이 지역 경제를 살립니다.
- ② 윤일: 장수 의자에 앉아 신호등을 기다려 보세요. 편안함을 위한 장수 의자, 안전함까지 드립니다.
- ③ 혜영: 장수 의자에서 만난 이웃들과 함께 웃어 보아요. 우리 지역의 공동체는 더 밝아질 것입니다.
- ④ 지혜: 안전을 위해 장수 의자에서 잠시 대기하세요. 장수 의자에 머물면서 당신의 삶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 ⑤ 지오: 힘겨운 기다림은 이제 그만, 편안한 기다림은 이제 시작. 장수 의자, 어르신들의 안전과 휴식을 책임집니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을 수 있는 영역은 위치 탐지 패턴이 아니라 인코딩 화 영역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5문단에서 위치 탐지 패턴은 QR 코드가 어떤 방향으로 놓여 있어도 쉽고 빠르게 인식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5문단에서 타이밍 패턴은 다른 모듈들의 위치 정보와 QR 코드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5문단에서 정렬 패턴은 QR 코드가 곡면 등에 인쇄되어 일그러진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5문단에서 위치 탐지 패턴, 타이밍 패턴, 정렬 패턴이 기능 패턴에 속한다고 하였고, 기능 패턴이 QR 코드가 효율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38. [출제의도] 진행자의 역할 이해하기

(가)의 '학생 1'의 발화에서는 사례를 제시하여 다양한 생각을 유도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지난번 모임에서 ~ 이야기하기로 했잖아.'라고 하며 지난 활동에서 결정된 주제를 환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우선 한 명씩 ~ 먼저 이야기해 볼래?', 두 번째 발화에서 '이번에는 내가 먼저 얘기해 볼래?'라고 하며 발언자의 순서를 지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생 1'은 두 번째 발화에서 '다른 사람들 ~ 서로 생각이 다르구나.', 세 번째 발화에서 '너희가 생각하는 ~ 입장에서 나눠는구나.'라고 하며 대화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학생 1'은 네 번째 발화에서 '오늘 나는 이야기를 ~ 다음 모임 때 발표해 보자'라고 하며 다음 모임의 활동 내용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의 '학생 3'은 '물론 많은 사람들은 ~ 모습을 응원했지.', [B]의 '학생 2'는 '진정한 영웅이 ~ 말에는 동의'한다며 모두 상대방이 한 말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A]의 '학생 3'은 '하지만 법 또한 ~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B]의 '학생 2'는 '영웅의 정의로움을 ~ 정의로웠다고 생각해.'라고 하며 상대방과 다른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 파악하기

(나)의 1문단에서 "영웅"이라고 하면 ~ 떠올릴 것이다.'라고 (가)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영웅의 일반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영웅보다 정의로운 홍길동의 행동을 부각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나)의 1문단에서 '부정부패한 권력층의 ~의적 활동을 펼쳐'라고 (가)의 '학생 2'와 '학생 3'이 언급한 내용을 활용하여 불의에 맞서 약자들을 돕는 홍길동의 영웅적인 모습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학생 2'의 세 번째 발화에 드러나는 '나는 홍길동의 행동이 ~ 정의로웠다고 생각해.'라는 '학생 2'의 견해에 공감하며 홍길동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음을, (나)의 2문단에서 '그러나 친구들과 ~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3문단에서 '예를 들어 재난 현장 ~ 영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가)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례를 제시하며 오늘날의 진정한 영웅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4문단에서 '이번 동아리 활동은 ~ 좋은 기회였다.'라고 (가)에서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며 홍길동의 영웅적 면모와 진정한 영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활동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1. [출제의도] 조건에 따라 고쳐쓰기

초고는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마

무리 되어있는데 (나)에서는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게 되었다'로 수정되어 글쓴이의 다짐이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내가 결심한 내용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면서 마무리하는 건 어때?'라는 조언이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초고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에서 의미가 중복되어 사용된 어휘 중 '수용하는'이 삭제되어 (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초고에서 주제에서 벗어난 '고전을 읽으면 ~ 도움이 된다.'라는 문장이 삭제되어 (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글쓴이의 생각이 확장되었음을 드러내는 '나아가서'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제목과 관련해 글쓴이는 (나)의 3문단에서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했으나, 초고에는 봉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이에 조언에 따라 '봉사할 수 있는'이 추가되어 (나)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작문 계획 이해하기

(가)의 결론에는 본문에서 서술한 설문 조사 결과인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면에 대한 인식과 수면 실태를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으나, 수면 실태가 수면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정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서론에 조사 대상, 방법, 기간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수면에 대한 인식과 수면 실태로 항목을 나누어 조사했음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수면에 대한 인식과 수면 실태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학생들 중 일부를 대상으로 추가 질문을 했음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본문에서 설문 결과를 백분율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판단하기

[자료 3]에서 각성 효과는 카페인 섭취로 인해 뇌의 활동이 억제되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이며 각성 효과로 인해 제시간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했고, [자료 2]에서는 멜라토닌과 각성 효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자료 2]와 [자료 3]을 활용해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성 효과가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해결책으로 추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자료 1-②]는 국가별 고등학생 평균 수면 시간을 보여주는 표이므로 외국 학생들과 비교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하다. ② [자료 2]는 빛의 노출에 따른 멜라토닌 분비량의 변화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보여주고 있으므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빛을 차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적절하다. ③ [자료 3]은 카페인으로 인해 제시간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자료 1-③]는 인체의 면역력과 관련된 T세포의 수치가 수면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자료 2]는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이 면역 기능 유지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으므로 수면의 양이 부족하거나 질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조건에 따라 표현하기

'충분한 시간 동안 깊이 자는 잠은 건강한 삶을 위한 지름길입니다.'에서 수면의 양과 질이 모두 중요하다는 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지름

길입니다'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수면의 질이 중요하다는 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수면의 양이 중요하다는 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수면의 양과 질이 모두 중요하다는 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5. [출제의도] 작문 맥락 고려하여 글 이해하기

(가)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나)에서는 (가)에 제시된 설문 조사 결과와 잠과 면역력과의 관계, 잠과 관련된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특징 등의 객관적인 근거를 활용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가)에는 예상 독자에 대한 글쓴이의 당부가 드러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문제 상황에 대해 글쓴이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나)에서만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글쓴이의 구체적인 경험은 (가)와 (나)에 드러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제목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가)에만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언어와 매체]

35	⑤	36	④	37	①	38	②	39	①
40	③	41	③	42	②	43	③	44	④
45	⑤								

35. [출제의도] 용언의 활용 이해하기

'울렀네'는 어간 '울리-'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 종결 어미 '-네'가 결합하여 활용된 용언이다. 따라서 '울렸네'는 ㉠에 속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끝내겠습니다'는 어간 '끝내-'와 선어말 어미 '-겠-', 대화의 상대방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종결 어미 '-습니다'가 결합하여 활용된 용언이므로 적절하다. ② '준비하기'는 어간 '준비하-'와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결합하여 활용된 용언이므로 적절하다. ③ '들어가신'은 어간 '들어가-'와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기능을 하는 선어말 어미 '-시-', 어말 어미 '-니'가 결합하여 활용된 용언이므로 적절하다. ④ '계신'은 어간 '계시-'와 관형사형 전성 어미 '-니'가 결합하여 활용된 용언이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연결 어미 이해하기

㉠의 '-고'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을 나열의 의미 관계로 이어 주는 대등적 연결 어미이다. ㉡의 '-어'와 ㉢의 '-고'는 앞 문장이 뒤 문장의 원인이라는 의미를 가지도록 이어 주는 종속적 연결 어미이다. ㉣의 '-고'와 ㉤의 '-어'는 분열언과 보조 용언을 이어 주는 보조적 연결 어미이다.

37.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확인된 문제'의 사례에서 '출력된 자료'는 '표기된 자료'의 '표준 발음'이 그대로 출력되어 있다. 따라서 '표기된 자료'와 '출력된 자료'를 비교하여 분석하면 프로그램이 분석하지 못한 음운 변동 현상을 알 수 있다. 먼저 '끊어지다[끄너지다]'에는 'ㅎ 탈락'이, '암 탐[암탁]'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데, 프로그램은 음운의 탈락 현상을 분석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없애다[업:애다]'에는 '된소리되기'가, '피붙이[피부치]'에는 '구개음화'가, '웃어른[우더른]'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데, 프로그램은 음운의 교체 현상을 분석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분석하지 못한 음운 변동 현상은 ㉠, ㉡이다.

38. [출제의도] 단어의 구조 파악하기

'사례 1'에서 ㉠은 접사인데, 학생들의 반응에서 ㉡을 어근으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접사로 알고 있는 학생들보다 더 적으므로,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복'은 접사 '한-'과 어근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접사인 ㉡이 쓰인 예로 적절하다.

① '사례 1'에서 ㉠은 접사로,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한번'은 어근 '한'과 다른 어근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접사인 ㉡이 쓰인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③ '사례 2'에서 ㉡은 어근으로,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하지만 '떡이'는 어근과 접사 '-이'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어근인 ㉡이 쓰인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④ '사례 2'에서 ㉡은 어근으로,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미닫이'는 어근과 접사 '-이'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어근인 ㉡이 쓰인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⑤ '사례 3'에서 ㉠은 접사로, ㉡을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더 적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알사탕'은 어근 '알'과 다른 어근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접사인 ㉡이 쓰인 예로 적절하지 않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이해하기

'불휘'에는 받모음 'ㅣ'로 끝난 체인 '불휘' 뒤에 주격 조사가 ㉠(영형태)로 실현되어 주격 조사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식미'에는 자음으로 끝난 체인 '실' 뒤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해 체인의 끝소리가 연음되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브르매'는 명사 '브름'에 조사 '애'가, '마르래'는 명사 '마를'에 조사 '애'가 결합하고 있으며 이때 '애'는 현대어 풀이에서 부사격 조사 '에'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하느니'는 현대어 풀이에서 ' 많으니'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브르'에는 명사 '를'의 끝소리 'ㄹ'을 조사 '은'의 첫소리로, '바르래'에는 명사 '바를'의 끝소리 'ㄹ'을 조사 '애'의 첫소리로 옮겨 적는 방식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내히'에는 끝소리에 'ㅎ'을 가진 체인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인 '이'를 만나 'ㅎ'이 연음되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40.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특징 이해하기

인터넷 매체인 (다)는 인쇄 매체인 (나)와 달리 실시간으로 의견을 남길 수 있는 댓글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가)와 (나) 모두 글자 크기의 차이를 통해 제목과 구체적인 정보를 구분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가)와 달리 (나)는 문자 언어와 이모티콘이 함께 나타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는 동일한 이미지의 나열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와 달리 (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1. [출제의도] 광고의 특성 이해하기

공기 청정기의 기능과 관련된 용어인 'CADR'의 의미와, 이번에 출시된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두 배 높은 CADR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기능적 특징을 제시한 부분은 사실적인 정보만 활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가)는, 플라스틱 빨대가 바다 생물에 위협이 된다는 환경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줄이라고 설득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는, 공기 청정기의 기능을 제시하여 상품의 판매에 촉진되도록 설

득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다)의 하단에는 '○○일보'라는 언론사 명칭과 '김△△'라는 기사 작성자 이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다)의 '건강 기능 식품 전문 기업 ○○사, '○○헬스' 출시'는 표제, '감태 추출물 활용하여 불면증 개선에 효과적'과 '하루 한 알로 피로 회복 효과까지'는 부제, '건강 기능 식품 전문 기업 ○○사는 ~ 피로 회복 효과도 있다.'는 전문으로, (다)는 기사문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광고문의 언어적 표현 이해하기

㉠에서 '두 배'의 '두'는 수 관형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지구 환경도'의 보조사 '도'는 '살릴'의 대상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서 '때문이다'의 의존 명사 '때문'은 '감태 추출물'이 '효과'의 원인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에서 접속 부사 '그래서'는 앞 문장과 의 인과 관계를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에서 '이들'의 대명사 '이'는 앞에서 언급한 '판매될' 제품을 지시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매체 자료 내용 추론하기

[C]에서 '지혜'의 '근데 윤일이가 올린 동영상' ~ 내용이 겹쳐'를 보면, 지오가 올린 동영상에 어르신께서 장수 의자에 앉아 계신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 '혜영'의 '그러고 보니 ~ 제작 목적에 대한 설명이구나!'를 보면, '혜영'이 올린 기사문에는 장수 의자 제작 목적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B]에서 '호상'의 '사진이 너무 흐릿해서 잘 안 보여'와, '윤일'의 '이게 원본인데 확인해 볼래?'와, '지혜'의 '이게 더 잘 보인다.'를 보면, 실시간으로 공유된 사진보다 '윤일'이 올린 장수 의자 사진의 화질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D]에서 '호상'의 '그러면 편집은 내가 할게'와, '지혜'의 '그럼 내가 너 대신 ~ 익숙할 테니까.'를 보면, '지혜'가 올린 역할 분담에는 '지혜'와 '호상'이 각각 슬라이드 제작자와 발표자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E]에서 '지혜'의 '그러면 장수 의자 홍보 그림의 출처는 못 찾았어'와 호상의 '아, 미안해. 그 출처는 이거야. 여기 주소 보낼게. <http://www.◇◇.go.kr>를 보면, '호상'이 올린 장수 의자 홍보 그림에는 인터넷 주소인 출처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매체 자료 내용 분석하기

(나)에서 '윤일'의 '할아버지 말씀은 글로 ~ 있을 것 같아.'를 보면, ㉠에서 활용되어야 할 사진 속 장수 의자에는 '무단 횡단 금지'가 '잠시 쉬어 가세요.'보다 더 크게 적혀 있어야 하는데, <보기 2>에서 실제 활용된 사진에는 '잠시 쉬어 가세요.'가 '무단 횡단 금지'보다 더 크게 적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나)에서 '지오'의 '우선 각 ~ 필요가 있겠어.'를 보면, 중심 화제를 이어 주는 말을 중심 화제보다 글자 크기를 작게 수정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해 <보기 2>에서 바르게 수정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에서 '지오'의 '더불어 중심 화제들의 ~ 좋을 것 같아.'를 보면, 제시 순서에 맞게 중심 화제에 번호를 달아야 하는데, 이를 반영해 <보기 2>에서 바르게 수정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에서 '혜영'의 '그러면 윤일이가 올린 동영상'을 글과 그림으로 정리해서 ~ 제시할 필요는 없잖아.'와, '윤일'의 '할아버지 말씀은 글로 정리하고'를 보면, 할아버지는 그림으로, 할아버지 말씀은 글로 정리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해 <보기 2>에서 바르게 수정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에서 '지오'의 '그러면 개선 요구 사항이 ~ 효과적일 것 같아.'를 보면, 표제 제시된 개선 요구 사항을 원그래프로 수정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해 <보기 2>에서 바르게 수정했으므로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매체 언어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장수 의자, 어르신들의 안전과 휴식을 책임집니다.'에서 장수 의자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힘겨운 기다림은 이제 그만, 편안한 기다림은 이제 시작.'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나의 작은 관심, 지역의 큰 기쁨.'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장수 의자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편안함을 위한 장수 의자, 안전함까지 드립니다.'에서 장수 의자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장수 의자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 (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단어를 공통된 성질에 따라 분류한 것을 ‘품사’라고 하는데,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중 단어 분류가 가지는 공통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 대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대상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주로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 주로 용언이나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 주로 체언에 붙어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조사, 말하는 이의 놀람, 느낌, 부름 등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구분된다.

단어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품사로 사용되지만 어떤 단어는 두 가지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를 ‘품사 통용’이라고 한다. ‘같이’의 경우, ‘같이 가다’에서는 부사로, ‘소같이 일만 하다’에서는 조사로 쓰이고 있다. 품사 통용은 중세 국어에도 있었는데, 현대 국어의 품사 통용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현대 국어에서 하나의 품사로 쓰이는 단어가 중세 국어에서는 품사 통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현대 국어에서 관형사로만 쓰이는 ‘어느’를 살펴보자.

(ㄱ) 어느 뉘 講訢니(어느 누가 청한 것입니까?)
 (ㄴ) 迷惑 어느 플리(미혹한 마음을 어찌 풀 것인가?)
 (ㄷ) 이 두 말을 어늘 從訢시려뇨
 (이 두 말을 어느 것을 따르시겠습니까?)

중세 국어에서 ‘어느’는 (ㄱ)에서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로, (ㄴ)에서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 쓰였다. (ㄷ)에서 ‘어늘’은 ‘어느’에 조사가 결합된 형태로 여기에서 ‘어느’는 명사를 대신하여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였다. 현대 국어에서 관형사로만 쓰이는 ‘어느’가 중세 국어에서는 관형사, 부사, 대명사로 두루 쓰인 것이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과연 두 사람이 만날 수 있을까?
 ㄴ. 합격 소식을 듣고 그가 활짝 웃었다.
 ㄷ. 학생,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는 해야지.

- ① ㄱ의 ‘과연’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이군.
- ② ㄱ의 ‘두’는 대상의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이군.
- ③ ㄴ의 ‘웃었다’는 대상의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이군.
- ④ ㄷ의 ‘학생’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군.
- ⑤ ㄷ의 ‘는’은 체언에 붙어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조사이군.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가)에서 ‘이’는 두 개의 품사로, ‘새’는 하나의 품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가), (나)를 통해 ‘이’와 ‘새’의 현대 국어에서의 품사를 알아보고 중세 국어와 비교해 봅시다.

[자료]

(가) 현대 국어

-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 이 사과는 맛있다.
- 새 학기가 되다.

(나) 중세 국어

- 내 이를 爲訢야(내가 이를 위하여)
- 내 이 도늘 가져가(내가 이 돈을 가져가서)
- 새 구스리 나며(새 구슬이 나며)
- 이 나래 새를 맛보고(이날에 새것을 맛보고)
- 새 出家訢 사르미니(새로 출가한 사람이니)

- ① 현대 국어에서 ‘이’는 대명사로도 관형사로도 쓰이고 있군.
- ② 현대 국어에서 ‘이’의 품사 통용은 중세 국어 ‘이’의 품사 통용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군.
- ③ 중세 국어에서 ‘새’는 대명사로도 부사로도 쓰였군.
- ④ 중세 국어에서 ‘새’는 현대 국어의 ‘새’와 동일한 품사로도 쓰였군.
- ⑤ 중세 국어에서 ‘새’는 다양한 품사로 두루 쓰였지만 현대 국어에서 ‘새’는 품사 통용이 나타나지 않군.

37.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한 음운이 다른 음운과 만날 때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서 소리 나는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한다. 음운 변동은 그 양상에 따라 교체, 축약, 탈락, 첨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음운 변동은 한 단어에서 두 가지 이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 ① ‘물약[물락]’에서는 첨가와 교체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② ‘옴는[음는]’에서는 탈락과 교체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③ ‘값하다[가과다]’에서는 탈락과 축약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④ ‘급행요금[그괩뇨금]’에서는 탈락과 축약과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 ⑤ ‘넓죽하다[넙쭈카다]’에서는 탈락과 교체와 축약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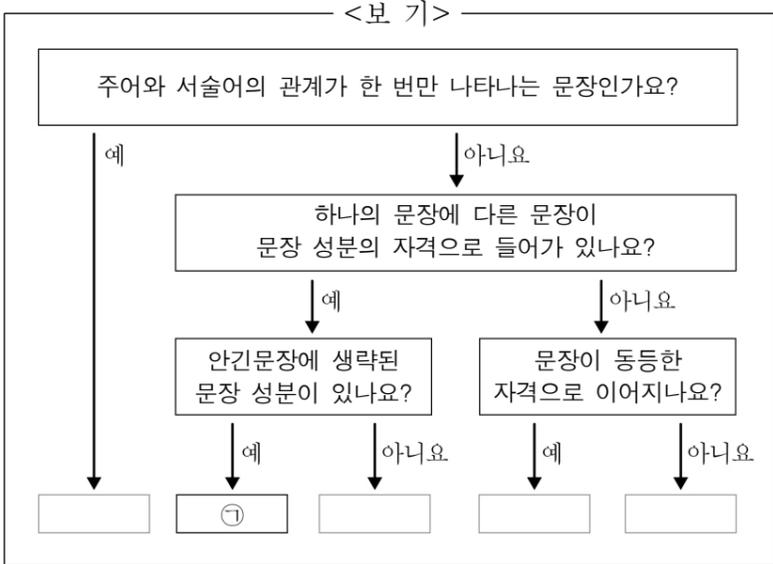
38.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활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양한 기능을 갖춘 물건이다.’에서 ‘갖은’은 ‘가진’을 잘못 쓴 예이다. ‘갖다’는 본말 ‘가지다’의 준말로, ‘갖다’와 ‘가지다’는 모두 표준어이다. 그런데 ‘갖다’는 ‘갖고’, ‘갖지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지만 ‘갖아’, ‘갖으며’와 같이 활용할 수는 없는데, 이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디디다/내딛다, 서투르다/서툴다, 머무르다/머물다, 서두르다/서둘다, 건드리다/건들다’ 등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본말의 활용형만 쓴다.

- ① 그녀는 새로운 삶에 첫발을 내딛었다.
- ② 아저씨가 농사일에 서투른 줄 몰랐다.
- ③ 우리는 여기에 머물면서 쉴 생각이다.
- ④ 서두르지 않으면 출발 시간에 늦겠다.
- ⑤ 조금만 건드려도 방울 소리가 잘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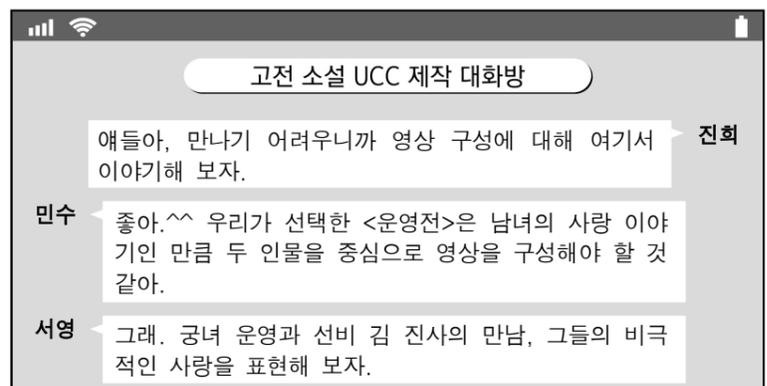
39. <보기>의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아버지가 만든 책꽂이가 제일 멋지다.
- ② 어머니는 그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 ③ 그녀는 지난주에 고향 집으로 떠났다.
- ④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다.
- ⑤ 형은 개를 좋아하지만 나는 싫어한다.

[40~42] (가)는 학생들이 ‘고전 소설 UCC’ 제작 준비를 위해 휴대 전화 메시지로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진희’가 작성한 이야기판 초안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호: 만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운영과 김 진사가 처음 만날 때 운영이 자기 손에 뿜 먹물 방울에 수줍어하는 모습에 나도 같이 설레더라.

진희: 나도 그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 그런데 안평대군은 주인공들을 만나게도 했지만 가로막기도 했잖아. 비중 있게 다뤄야 할 것 같은데, 어때?

민수: 그래. 안평대군도 포함해서 소개하고 인물 소개 장면에서 설명하는 자막과 내레이션을 넣자. 그리고 전체 줄거리도 넣어야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진희: 그럴 것 같아. 그럼 영상을 소설 제목 소개, 등장인물 소개, 줄거리 소개로 구성하는 걸로 하자.

민수: 우선 소설 제목을 소개할 때는 마주보는 주인공의 모습을 화면에 넣자.

서영: 좋아. 그리고 소설의 비극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배경 음악을 사용하면 좋겠어. 다들 내가 보낸 음악 한번 들어 봐.

서영: [음악 파일 전송: 해금 연주.mp3]

지호: 들어 보니까 정말 좋다. 줄거리 소개 부분에도 다른 배경 음악을 넣어 볼까?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레이션도 넣고.

진희: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줄거리 소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호: 있잖아. 줄거리는 내가 정리한 게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볼래?

지호: [문서 파일 전송: 운영전 줄거리.txt]

진희: 정리 잘했다. 이 자료 보고 내가 줄거리 소개에 쓸 장면을 골라 볼게. 아, 그리고 영상에 우리 이름도 넣어놔야지?

민수: 물론이지. 영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넣자.

진희: 알았어. 그럼 내가 이야기판 초안을 만들어 볼게. 나중에 조언 부탁해.

(나)

이야기판 1 - 소설 제목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 마주보고 있는 두 주인공의 모습 제시
 - 만든 이 이름 제시
- 배경 음악: 구슬픈 해금 연주

[화면 구성]

운영전

서영, 진희, 민수, 지호

이야기판 2 - 등장인물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 운영 → 김 진사 → 안평대군 순서로 등장
 - 자막으로 각 인물의 특징 제시
- 내레이션: 자막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화면 구성]

운영 김 진사 안평대군

자막 자막 자막

이야기판 3 - 줄거리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주요 장면을 차례대로 제시
- 배경 음악: 사랑 노랫말의 음악
- 내레이션: 각 장면에 따라 줄거리 소개

[화면 구성]

장면 1 장면 2 장면 3

40. (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호'는 매체상에서 공유된 음악 자료를 자신이 수집한 음악 자료와 비교하고 있다.
 - ② '지호'는 자신이 정리한 문서 파일을 대화 참여자들 중 특정 참여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③ '진희'는 매체상에서 전송된 문서 파일 자료를 바로 확인한 후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 ④ '진희'는 매체 자료의 특징을 활용하여 대화방을 만들고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알려 주고 있다.
 - ⑤ '서영'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른 대화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41.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했을 때,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야기판 1을 보니 소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구슬픈 해금 연주를 배경 음악으로 사용했군.
 - ② 이야기판 1을 보니 소설 제목과 주인공에 주목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영상을 제작한 학생들의 이름을 화면 아래쪽에 넣었군.
 - ③ 이야기판 2를 보니 등장인물의 특징을 소개하기 위해 자막을 활용하여 화면을 구성했군.
 - ④ 이야기판 3을 보니 주요 장면을 친구들의 의견에 따라 선정하고 차례대로 제시하며 줄거리를 소개했군.
 - ⑤ 이야기판 2와 3을 보니 영상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레이션을 활용했군.

42. <보기>는 학생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나)를 수정한 이야기판이다. ㉠~㉢를 통해 알 수 있는 조언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야기판 1 - 소설 제목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 마주보고 있는 두 주인공의 모습 제시
 - 만든 이 이름 제시
- 배경 음악: 구슬픈 해금 연주

[화면 구성]

㉠ **운영 전**

- 역을 한 방울로 이어진 만남 -



서영, 진희
면수, 지호

이야기판 2 - 등장인물 소개

[주요 내용]

- ㉡ **화면 효과:**
 - 운영 → 김 진사 → 안평대군 순서로 등장
 - 안평대군은 두 주인공 사이에 위치
 - 자막으로 각 인물의 특징 제시
- 내레이션: 자막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화면 구성]

운영	안평대군	김 진사
		
㉢ 자막	자막	자막

이야기판 3 - 줄거리 소개

[주요 내용]

- 화면 효과: 주요 장면을 차례대로 제시
- ㉢ **배경 음악:** 가사 없는 음악
- 내레이션: 각 장면에 따라 줄거리 소개

㉢ [화면 구성]

장면 1	장면 2	장면 3
장면 4	장면 5	장면 6

- ① ㉠: 주인공들의 인연이 부각되도록 인상적인 장면을 담은 부제를 넣자.
- ② ㉡: 주인공을 가로막는 인물의 역할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등장인물의 등장 순서를 바꾸자.
- ③ ㉢: 등장인물의 모습을 가리지 않도록 자막 위치를 옮기자.
- ④ ㉣: 내레이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사 없는 음악으로 배경 음악을 바꾸자.
- ⑤ ㉤: 줄거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주요 장면의 개수를 늘리자.

[43~45] (가)는 인터넷 신문이고, (나)는 라디오에서 방송한 대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신문 2021년 7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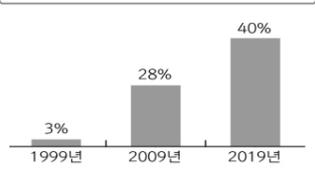
[연재] 지도와 세상 이야기②

우리 바다 '동해' 바로 알고, 지명 표기 방법 고민해야

입력 2021.7.○○. 오전 7:06 최종 수정 2021.7.○○. 오후 3:02

동해가 세계 지도에 단독 표기되었거나 일본해와 병기된 비율이 예전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세계 지도상에는 일본해로 표기된 경우가 많다. 기록을 살펴보면 동해는 우리 민족사에서 단순히 '동쪽 바다'만 의미하지 않았고, 해가 뜨는 바다로서 신성함과 기원의 대상이었다. 또한 『고려사』에는 왕건이 고려 건국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글에서 “동해의 끊어진 왕통을 이어 나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왕건이 말한 동해는 고구려를 일컫는 것으로 이는 동해가 국호와도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검색창]



연도	비율 (%)
1999년	3%
2009년	28%
2019년	40%

㉠ 동해가 세계 지도에 단독 표기되었거나 일본해와 병기된 비율

현재 동해의 영문 표기는 'EAST SEA'이다. 여기에는 우리 민족이 간직한 동해에 대한 정서는 없고, 단순히 동쪽에 자리한 바다만을 가리킬 뿐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한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착 지명인 동해를 사용하여 영문 표기를 'DONG HAE'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김△△(◇◇박물관장) 인터뷰 동영상

동해의 이름 되찾기 연구를 지속해 온 김 △△(◇◇박물관장)은 동해의 지명 표기를 'DONG HAE/EAST SEA'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DONG HAE/EAST SEA'로 표기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의식 속에 자리한 동해의 의미를 부각하면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동해를 'EAST SEA'라고 주장했던 외교적 원칙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명은 담고 있는 의미가 사용하는 사람의 의식에 각인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일본해가 아닌 우리 바다 '동해'를 세계 지도상에 올바르게 표기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최□□ 기자(news@ooo.com)

㉢ **[관련된 뉴스]**

- ▶ 동해 표기의 역사, 우리 정부와 시민 단체의 노력
- ▶ 국제수로기구, 동해나 일본해 대신 고유 번호 표기 논의

댓글 6개

○○○**** 2021.7.00. 9:03
저희 학생 동아리에서도 동해 표기와 관련된 자료를 게시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http://blog.○○○.com] 링크로 들어오셔서 의견 남겨 주세요.
[답글 3] 👍 6 🗨 2

△△△**** 2021.7.00. 16:57
이런 기사 좋아요! 다음 기사도 기대할게요.
[답글 1] 👍 1 🗨 0

(나)

진행자: (12시 정각을 알리는 음향 신호)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12시 현재, ‘생방송 뉴스를 듣다’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도와 세상 이야기’라는 연재 기사를 쓰고 있는 최 □□ 기자를 모시고 ㉔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동해의 지명 표기 방법에 대해 대화를 나눠 보겠습니다. 최 기자님, 어제 신문에 두 번째 연재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동해의 지명에 대한 내용이었지요?

기자: 맞습니다. 동해는 우리 민족사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지도에 일본해로 표기되거나, 단순히 방위의 개념을 표현한 지명으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습니다. 기사를 통해 독자들이 동해에 대해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기획한 것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방금 청취자께서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질문해 주셨네요. “세계 지도에 우리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질문을 다른 분들도 많이 해 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표기하게 된 역사적 사건이 있었나요?

기자: 네. ㉕ 1919년 국제수로국을 창설하기로 결의한 후, 1923년 국제수로국 회의에서 일본이 동해의 명칭을 일본해로 등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고착된 것이지요.

진행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동해의 지명 표기 방법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긴급 뉴스 속보가 들어온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못 다한 이야기는 누리집의 다시 듣기 서비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3. 다음은 (가)와 (나)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전달 매체	인터넷	라디오
매체 자료 생산자	기자	진행자와 기자
매체 자료 수용자	신문 독자	대담 청취자

- ① (가)의 댓글을 보니 매체 자료 수용자인 독자가 또 다른 생산자가 될 수도 있군.
- ② (가)는 전달 매체 특성상 탑재와 동시에 공유될 수 있으므로 한번 생산한 매체 자료의 내용은 다시 수정할 수 없겠군.
- ③ (나)는 다른 매체를 추가로 활용하여 매체 자료 수용자와 양방향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군.
- ④ (나)는 송출할 수 있는 시간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다시 듣기 서비스로 이를 보완하고 있군.
- ⑤ (가)는 문자, 도표, 영상으로, (나)는 음성, 음향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군.

44. (가)와 (나)의 언어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마지막 문장을 명령형으로 종결하여 독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② (가): 간접 인용 표현을 써서 『고려사』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간결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③ (가): 표제를 피동으로 표현하여 주체를 드러내지 않고 정보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 ④ (나): ‘기자’는 현재 시제만을 활용하여 현장감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⑤ (나): ‘진행자’는 접속 표현을 사용하거나 앞에서 언급된 내용을 대신하는 표현을 써서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할 때, ㉑~㉕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매체 수용자는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 자료에 담긴 관점과 가치가 공정한지, 자료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제시된 정보나 자료는 신뢰할 만한 내용인지 등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비판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매체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매체 형식에 따라 정보를 적절하게 수용하며, 매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수용자가 되어야 한다.

- ① ㉑: 검색을 통해 통계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여 신뢰할 만한 내용인지 판단해야겠어.
- ② ㉒: 전문가의 인터뷰 동영상 내용을 분석하며 기사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타당한지 점검해 봐야겠어.
- ③ ㉓: 관련된 뉴스 내용을 확인하고 기사 내용과 비교하면서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수용자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어.
- ④ ㉔: 매체 특성상 이야기의 세부 내용은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순차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적절하게 수용해야겠어.
- ⑤ ㉕: 주관적 의견을 표현한 내용이므로 매체 자료에 담긴 관점이 공정한지 평가해야겠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언어와 매체 정답

35	②	36	③	37	④	38	①	39	①
40	⑤	41	④	42	②	43	②	44	⑤
45	⑤								

언어와 매체 해설

35. [출제의도] 품사의 분류 이해하기
ㄱ의 '두'는 후행하는 명사 '사람'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36. [출제의도]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 품사 통용 탐구하기
현대 국어에서 '새'는 '새 학기가 되다.'의 '새'처럼 '학기'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로만 쓰이고 있다. 반면 중세 국어에서 '새'는 관형사, 명사, 부사로 두루 쓰였다. '새 구스리 나며'의 '새'는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로, '이 나래 새를 맛보고'의 '새'는 조사와 결합하여 '새로 나오거나 만든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명사로, '새 出家혼 사르미니'의 '새'는 후행하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 두루 쓰였다.

①, ② 현대 국어에서 '이'는 대명사로도 관형사로도 쓰이고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의 '이'는 조사와 결합하여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이 사과를 맛있다.'의 '이'는 '사과'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로 쓰이고 있다. 중세 국어 '이' 또한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대명사와 관형사로 쓰였다. '내 이를 爲호야'의 '이'는 조사와 결합한 대명사로, '내 이 도늘 가져가'의 '이'는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로 쓰였다.

37. [출제의도] 음운 변동 이해하기
'급행요금[그깡노급]'에서는 '급'의 끝소리 'ㅂ'과 'ㅎ'이 축약되어 거센소리 [ㅍ]으로 발음되고 '급행'과 '요금' 사이에서 'ㄴ'이 첨가된다. 탈락의 음운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① '물약'에서 'ㄴ' 첨가가 일어나고 첨가된 'ㄴ'이 '물'의 끝소리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발음된다. ② '웁는'에서 '웁'의 끝에 오는 두 자음 중 'ㄹ'이 탈락되고, 남은 'ㅍ'이 'ㅂ'으로 바뀌고 뒤에 오는 'ㄴ'의 영향을 받아 [ㅍ]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③ '값하다'에서 '값'의 끝에 오는 두 자음 중 'ㅅ'이 탈락되고, 남은 'ㅂ'이 뒤에 오는 'ㅎ'과 축약되어 거센소리 [ㅍ]으로 발음된다. ⑤ '늪죽하다'에서 '늪'의 끝에 오는 두 자음 중 'ㄹ'이 탈락되고, 남은 'ㅂ'의 영향을 받아 뒤의 자음 'ㅈ'이 된소리 [ㅉ]으로 발음이 바뀐다. '죽'의 끝소리 'ㄱ'과 뒤의 자음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ㅋ]으로 축약되어 발음된다.

38. [출제의도] 본말과 준말 활용형의 적절성 평가하기
'내뉠다'는 '내디디다'의 준말로 '내뉠고, 내뉠지, 내뉠자' 등과 같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활용형에는 쓰이지만, '내뉠어, 내뉠으며, 내뉠으니' 등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활용형에는 쓰지 않는다. '그녀는 새로운 삶에 첫발을 내뉠었다.'에서 '내뉠었다'는 '내디디었다(내디뉠었다)'로 써야 한다.
② '서투르다'는 본말로 '서투르지, 서투르니, 서투러' 등과 같이 자음이나 모음으로 연결되는 어미의 활용형을 모두 쓸 수 있기에 '서투르'은 '서투르-'에 어미 '-ㄴ'이 결합된 단어로 그 활용형으로 적절한 예이다. ⑤ '건드리다'는 본말로 '건드리며, 건드리니, 건드리어' 등과 같이 자음이나 모음으로 연결되는 어미의 활용형을 모두 쓸 수 있기에 '건드려도(건드리어도)'는 단어의 활용형으로 적절한 예이다.

39.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 이해하기
'아버지가 만든 책꽂이가 제일 멋지다.'는 '책꽂이가 제일 멋지다.'와 '아버지가 책꽂이를 만들었다.'라는 두 문장이 결합한 문장이다. '아버지가 책꽂이를 만들었다.'가 '책꽂이가 제일 멋지다.'에 안기면서 목적어 '책꽂이를'이 생략되었다. 따라서 '아버지가 만든 책꽂이가 제일 멋지다.'는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 된다.
② '어머니는 그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그 일이 끝나기'라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이때 '그 일이 끝나기'라는 안긴문장에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③ '그녀는 지난주에 고향 집으로 떠났다'는 '그녀'라는 주어와 '떠났다'라는 서술어의 관계가 한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⑤ '형은 개를 좋아하지만 나는 싫어한다.'는 '형은 개를 좋아한다.'와 '나는 개를 싫어한다.'라는 두 문장이 동등한 자격으로 이어진문장이다.

40. [출제의도] 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의 특성 파악하기
'서영'은 소설 제목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소설의 비극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배경 음악을 사용했다면 좋겠다며 다들 한번 들어 보라고 해금 연주 음악 파일을 대화 참여자에게 전송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매체 자료 구성의 적절성 파악하기
(가)에서 '진희'는 '지호'가 전송해 준 줄거리 정리 파일을 확인하고 줄거리 소개에 쓸 장면을 자신이 고르겠다고 했다. 따라서 친구들의 의견에 따라 주요 장면을 선정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 '서영'은 소설 제목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소설의 비극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배경 음악을 사용했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반영하여 (나)의 이야기관 1에 배경 음악으로 구슬픈 해금 연주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에서 '진희'가 영상을 만든 자신들의 이름을 넣자고 제안했고 '민수'는 영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넣자고 언급했다. 이를 반영하여 (나)의 이야기관 1의 화면 오른쪽 하단에 만든 이름을 작게 넣어 소설 제목과 주인공들의 모습에 주목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에서 '민수'는 인물 소개 부분에 설명하는 자막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이를 반영하여 (나)의 이야기관 2에서 자막을 활용하여 등장 인물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에서 '민수'는 인물 소개 장면에서, '지호'는 줄거리 소개 부분에서 내레이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나)의 이야기관 2와 3에 내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수정 방안 추론하기
㉠를 보면 인물 등장 순서에 변화가 없으므로 인물의 역할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등장인물의 등장 순서를 바꾸자는 조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
① ㉠를 보면 (나)의 이야기관 1과는 달리 제목 아래 부제가 나타나 있고, 부제의 내용이 운영과 김 진사가 처음 만날 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③ (나)의 이야기관 2에서는 자막이 인물 그림을 가리는데, ㉡에서는 자막이 화면 아래에 위치하여 인물 그림을 가리지 않고 있다. ④ (나)의 이야기관 3을 보면 배경 음악으로 노랫말이 있는 음악이 쓰였으나 ㉢에서는 내레이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사 없는 음악을 쓰고 있다. ⑤ (나)의 이야기관 3에는 주요 장면이 3개 제시되어 있는데 ㉣를 보면 주요 장면이 6개로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출제의도] 매체의 유형과 특성 파악하기
(가)는 인터넷이라는 전달 매체 특성상 탑재 후에도 다시 수정할 수 있다. (가)의 표제 아래에 '입력' 시간과 '최종 수정' 시간이 나와 있는 것으로도 수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① 첫 번째 댓글을 쓴 매체 자료 수용자가 자신의 학생 동아리에서 동해 표기 관련된 자료를 게시하고 있다며 링크를 남긴 것을 보아 또 다른 매체 자료 생산자로서도 역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청취자가 누리집 게시판을 활용하여 올린 질문에 기자가 방송에서 답하는 것으로 보아 인터넷 매체를 추가하여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라디오는 매체 자료를 송출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긴급 뉴스 속보 때문에 전달하지 못한 내용이 생겼으며 이를 다시 듣기 서비스로 보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특성 파악하기
(나)의 '진행자'는 '그런데', '하지만', '따라서'와 같은 접속 표현을 사용하거나 '그것', '이런'과 같이 앞에서 언급된 내용을 대신하는 표현을 써서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② "동해의~하는 것이다."는 큰따옴표와 직접 인용 조사 '라고'를 사용하여 직접 인용된 것이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 수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은 사실을 전달하는 부분이므로 주관적 의견을 표현한 내용이라는 설명과 그에 따른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① 도표가 제시되어 있으나 출처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매체 요소인 검색창을 활용하여 출처를 확인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하겠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② 김△△(◇◇박물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이 기사에 담겨 있으므로 해당 전문가의 인터뷰 동영상의 내용을 분석하여 근거로서 타당한지 점검하겠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③ 다른 뉴스를 확인하고 비교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을 접하는 것은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수용자의 노력으로 적절하다. ④ 청각 매체의 특성상 안내된 정보의 세부 내용을 미리 알기 어려우므로 매체의 특성에 맞게 순차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적절하게 수용하겠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는 ‘않다’, ‘못하다’, ‘말다’, ‘아니다’, ‘없다’ 등의 부정 의미의 용언과 주로 함께 쓰이는 단어가 있다. 이러한 단어는 여러 품사에서 나타나는데, 단어에 따라 호응하는 부정 의미의 용언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나지 않은 문장이 문맥적으로 부정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에 쓰이는 단어가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나는 그곳에 차마 가지 못했다(*나는 그곳에 차마 갔다)’와 같이 ‘차마’는 부정 의미를 나타내는 ‘가지 못했다’와 어울린다. 그러나 ‘내가 그곳에 차마 가겠니?’와 같은 의문문이 ‘나는 그곳에 차마 갈 수 없다(가지 못한다/가지 않는다)’를 뜻함으로써 용언의 의미를 부정하는 문맥일 때에는 ‘차마’가 쓰일 수 있다.

한편, 부정문 형식의 문장에 함께 쓰여 그 문장의 의미를 강한 긍정으로 해석되게 하는 단어가 있다. 예를 들어, ‘문제가 어렵지 않다’라는 부정문에 ‘이만저만’을 함께 써서 ‘문제가 이만저만 어렵지 않다’가 되면 ‘문제가 매우 어렵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이만저만’으로 인해 문장의 의미가 ‘어렵다’를 강조하는 긍정으로 해석된 것이다.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난 문맥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들은 그 의미나 형태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유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난 문맥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문맥에서도 쓰이던 단어가 현대에는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난 문맥에서만 쓰이는 경우가 있다. 또한 과거에는 용언의 어간에 ‘-지 아니하다’를 결합한 형태로 쓰이던 것이 시대에 따라 ‘-잖다’나 ‘-찮다’로 축약된 형태가 쓰이기도 한다. 이들은 축약되기 전 형태의 의미와 유사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A] ※ ‘*’는 비문임을 나타냄.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그 일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있다.
 ㄴ. 화단의 꽃들이 여간 탐스럽지 않다.
 ㄷ. 나는 밤새도록 이것밖에 하지 못했다.
 ㄹ. 그 아이들이 좀처럼 제 말을 듣겠습니까?
 ㅁ. *나는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움짱달싹했다.
 ※ ‘*’는 비문임을 나타냄.

- ① ㄱ의 ‘아무런’은 긍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나는 문맥에서 사용될 수 없군.
- ② ㄴ의 ‘여간’은 ‘탐스럽지 않다’라는 부정 의미를 강조하고 있군.
- ③ ㄷ의 ‘밖에’는 부정 의미의 용언과 어울려 쓰이고 있군.
- ④ ㄹ의 ‘좀처럼’은 부정 의미를 내포하는 문맥에서 쓰이고 있군.
- ⑤ ㅁ의 ‘움짱달싹했다’를 ‘움짱달싹하지 못했다’로 바꾸면 어법에 맞겠군.

36. [A]를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했을 때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자 료]		
㉠	국어사 자료	○ 이거슨 <u>귀치 아니컨</u> 만은 보내는이다 [이것은 귀하지 아니하지마는 보내나이다]
	현대 국어	○ 그날은 몸이 아파 만사가 다 <u>귀찮</u> 았다.
㉡	국어사 자료	○ 봉늑 밧외도 <u>별로</u> 먹을 거슬 주시며 [봉늑 밖에도 특별히 먹을 것을 주시며] ○ <u>별로</u> 인스홀 테도 업스니 [특별히 인사할 모양도 없으니]
	현대 국어	○ 요즘은 공기가 <u>별로</u> 좋지 않다. ○ 나에게 그는 <u>별로</u> 매력이 없다.
㉢	국어사 자료	○ 무슨 말이든지 다 못드르면 <u>시원치 아니하</u> 여 [무슨 말이든지 다 못 들으면 시원치 아니하여]
	현대 국어	○ 대답이 <u>시원</u> 찮다.

< 보 기 >

㉠ ㉠에서, 현대 국어 ‘귀찮다’는 ‘귀하지 아니하다’가 축약된 형태로, 국어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와 유사하게 쓰임을 알 수 있다.

㉡ ㉡에서, 현대 국어 ‘별로’와 달리, 국어사 자료 ‘별로’는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나지 않은 문맥에서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에서, 현대 국어 ‘시원찮다’는 ‘시원하지 아니하다’가 축약된 형태로, 국어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와 유사하게 쓰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① ㉠ ② ㉡ ③ ㉠, ㉡ ④ ㉠, ㉢ ⑤ ㉡, ㉢

37. <보기>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문장에서 부사어는 다양한 형태로 실현됩니다. 명사에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도 그 중 하나입니다. 다음의 ㉠~㉢ 중 관형사절이 꾸미고 있는 명사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형태를 찾아볼까요?

○ 오늘의 행복은 ㉠ 내일의 성공만큼 중요하다.
 ○ 이곳의 토양은 ㉡ 토마토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다.
 ○ 너는 ㉢ 너에게 주어진 문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
 ○ 형은 ㉣ 머리가 덜 마른 상태로 국어 교과서를 읽었다.
 ○ ㉤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나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8. <보기>의 ㉠과 ㉡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보 기 >

탐구 주제: '훔다'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훔따]로 발음될까?
[자료]

(1) 종성의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ㄷ'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2)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음절 종성에 두 개의 자음이 놓이면 두 개의 자음 중 하나만 발음한다.

(3) 종성의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4) 같다[갈다], 날겠다[날겐따], 거칠더라도[거칠더라도]

탐구 과정:

가설 1: 어간의 종성에서 탈락이 일어난 후에 어미의 초성에서 교체가 일어난다.
→ '[자료] (4)'에서 확인되듯이, 어간이 (㉠) 끝날 때 그 어간 바로 뒤에 오는 어미의 초성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음.

가설 2: 어간의 종성과 어미의 초성에서 교체가 일어난 후에 어간의 종성에서 탈락이 일어난다.
→ '[자료] (1)'의 현상이 어간 종성에서 일어나 어간 종성의 'ㄷ'이 (㉡), '[자료] (3)'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이후 '[자료] (2)'의 현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음.

탐구 결과: '가설 1'을 기각하고 '가설 2'를 받아들인다.

- | | |
|---------|-------------|
| ㉠ | ㉡ |
| ① 'ㄷ'으로 | 'ㄷ'으로 교체된 후 |
| ② 'ㄷ'으로 | 탈락하게 된 후 |
| ③ 'ㄹ'로 | 'ㄷ'으로 교체된 후 |
| ④ 'ㄹ'로 | 탈락하게 된 후 |
| ⑤ 'ㅅ'으로 | 'ㄷ'으로 교체된 후 |

39. <보기>의 ㉠과 ㉡이 모두 사용된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국어의 높임 표현은 조사나 어미로 실현되기도 하지만 ㉠ 그 자체에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또한 국어에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표현도 존재한다. 겸양의 표현은 일부 어미로 실현되기도 하지만 ㉡ 그 자체에 낮춤의 의미가 있는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 ① 저희가 어머니께 드렸던 선물이 여기 있네요.
- ②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지께서 걸어가신다.
- ③ 제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 ④ 이 문제는 아버지께 여쭙어보자.
- ⑤ 지나야, 가서 할머니 모시고 와.

[40~42] (가)는 동아리 학생들이 휴대 전화 메시지로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채원'이 제작해 블로그에 올린 카드 뉴스의 초안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아리 대화방(4명)

학교에서 준 가정통신문 봤어? 음식물 쓰레기 줄이자는 거 말아야. 채원

준형 그거 읽어버렸어. 혹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 줄 수 있어?

현진 이거 말하는 거지?

사진 파일 전송: OO고 가정통신문(3MB)

응.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줄 몰랐어. 채원

수예 그래. 나도 그거 보고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증가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어.ㅠㅠ

준형 이전에 내가 보낸 영상 봤니?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내용이야. 못 본 사람은 꼭 봐. 여기 주소 올려 봐. <http://www.ddd.kr>

수예 나는 이미 봤는데 애니메이션이라 재미있더라.

현진 나도 지금 보내 준 주소로 들어가서 봤어. 짧지만 강렬하군!

준형 난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학교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떠올랐어.

그래서 말인데, 이에 관한 카드 뉴스를 제작해 학교 누리소통망에 올리자! 채원

수예 좋아. ㉠ 카드 뉴스는 사진, 이미지 등을 비중있게 사용하여 정보의 전달력을 높인 뉴스니까, 그 특성에 맞게 구성해야겠네.

현진 핵심 내용을 간단한 문구로 제시하고 다양한 이미지를 적절히 배치해야지.

㉡ 카드 뉴스를 볼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해. 채원

준형 그리고 ㉢ 우리 학교 학생들이 주로 볼 거니까, 학교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 좋을 것 같아.

좋아. 내가 카드 뉴스 초안 만들어서 동아리 블로그에 올릴게. 보고 댓글로 의견 줘. 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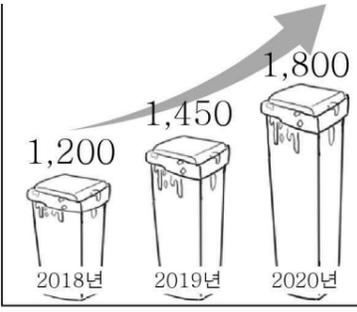
(나)

1/6

우리 학교 급식의 실태는?

급식을 남기는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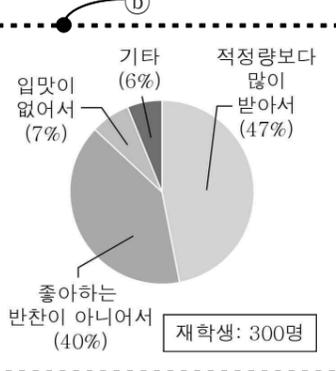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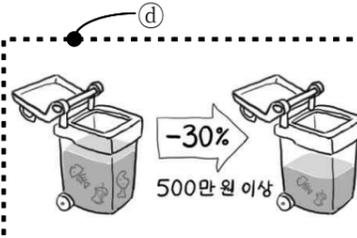
2/6

<p>우리 학교 급식 잔반 처리 비용은?</p>  <p>2018년 1,200 2019년 1,450 2020년 1,800</p> <p>○○고 급식 잔반 처리 비용(만 원)</p>	<p>우리 학교 급식 잔반을 30%만 줄여도?</p>  <p>“잔반을 30%만 줄여도 연 500만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어요.”</p> <p>○○고 영양사</p>
<p>3/6 급식 잔반을 줄이는 방안은?</p>  <p>딱 먹을 만큼만 받기!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기!</p> <p>5/6</p>	<p>4/6</p> <p>잔반을 줄이면</p> <p>○○고 급식의 질이 올라갑니다.</p>  <p>6/6</p>

40. (가)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진’은 자신이 직접 생산한 문서 파일을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② ‘수예’는 매체 자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매체 자료의 전달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③ ‘준형’은 하이퍼링크를 활용하여 대화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④ ‘채원’은 카드 뉴스의 제작을 제안하며 매체가 가지는 정보 전달의 과급력을 밝히고 있다.
 - ⑤ ‘채원’과 ‘수예’는 그림말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말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41. ‘채원’이 ㉠~㉥을 고려하여 세운 제작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급식 메뉴의 종류를 사진으로 제시해야겠어.
 - ② ㉠을 고려하여, 변화의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 정보의 전달력을 높여야겠어.
 - ③ ㉡을 고려하여, 이미지를 결합한 글자를 사용해 카드 내용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끌어야겠어.
 - ④ ㉢을 고려하여, 우리 학교의 급식 잔반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료로 제시해야겠어.
 - ⑤ ㉣을 고려하여, 잔반을 줄였을 때의 혜택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부각해야겠어.

42. 다음은 (나)에 달린 ‘덧글’이다. 다음을 바탕으로 (나)를 수정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진: 두 번째 카드의 제목은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 준형: 맞아. 제목이 내용과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그래프에 조사 대상의 인원과 각 항목에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도 밝혀 주자.
 ↳ 현진: 그래프에서 특별히 강조할 내용은 따로 정리해 주자.
 수예: 고생 많았어. 그런데 네 번째 카드의 삽화는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 현진: 그게 좋겠다. 그리고 잔반 줄이기를 통해 큰 효과를 거둔 다른 학교의 사례를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거야.

<p>2/6</p> <p>왜 급식을 남길까?</p>  <p>적정량보다 많이 받아서 (47%) 입맛이 없어서 (7%) 기타 (6%) 좋아하는 반찬이 아니어서 (40%)</p> <p>재학생: 300명</p> <p>급식을 남기는 이유는 ‘적정량보다 많이 받아서’가 47%로 가장 높았고, ‘좋아하는 반찬이 아니어서’가 40%로 그다음이었다.</p>	<p>4/6</p> <p>우리 학교 급식 잔반을 30%만 줄여도?</p>  <p>“잔반을 30%만 줄여도 연 500만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어요. 이 금액은 약 천 명의 한 끼 식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p>
---	---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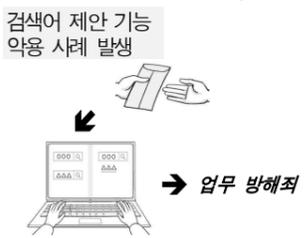
[43~45] (가)는 텔레비전 방송 뉴스이고, (나)는 신문 기사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면 1] 진행자: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 많으시죠?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검색어 제안 기능이 본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제보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유 □□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장면 2] 기자: 검색어 제안 기능은 전체 이용자의 검색 횟수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 어떤 방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장면 3] IT 전문가: 이렇게 검색창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한 후 특정 업체명을 검색하겠습니다. 이 작업을 수천 회 반복하면 특정 단어를 검색할 때 특정 업체가 검색어로 제안될 수 있습니다.

[장면 4] **검색어 제안 기능 악용 사례 발생**

[장면 5] **검색어 제안 기능 악용 사례 발생**

[장면 6] **영상 편집 김**


[장면 4] 기자: 검색어 제안 기능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포털 사이트의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가를 받고 검색어 제안 기능에 특정 업체명이 제시되도록 하여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면 5] 포털 사이트 관계자: 비정상적 방법에 의해 검색어가 제안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차단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해당 결과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장면 6] 기자: 검색어 제안 기능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㉔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

6면 2021년 ×월 ×일 화요일 사회 제 1210호 ☆☆신문

**‘검색어 제안 기능’에 대한 토론회 열려
규제 강화에 대한 입장 차이 확인**

‘검색어 제안 기능’ 병행성 모색 토론회


최근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제안 기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9일 ㉔㉔ 기관의 주관으로 검색어 제안 기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여한 언론 정보 전문가는 검색어 제안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검색어 제안 기능의 운영은 그 주체인 포털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았다.

한편 시민 단체 대표는 최근 부정확한 방법에 의해 검색어가 제안됨으로써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검색어 제안 기능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㉔ 또한 선량한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㉔ 토론회를 방청한 한 시민은 “자율성과 공익적 가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가 고려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윤○○ 기자 oooo@000.co.kr

43. (가)에 사용된 정보 제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면 1]에서는 뉴스 수용자가 보도의 핵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화면의 하단에 자막으로 보도 내용의 요점을 제시한다.
 - ② [장면 2]부터 [장면 5]까지는 뉴스 수용자가 중간부터 뉴스를 시청하더라도 보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화면 상단 한쪽에 핵심 어구를 고정하여 제시한다.

- ③ [장면 3]에서는 뉴스 수용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검색어 제안 기능의 악용 사례를 전문가의 시연을 통해 보여 준다.
 - ④ [장면 4]에서는 보도 내용에서 제시하는 사건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방향을 나타내는 기호를 활용하여 화면을 구성한다.
 - ⑤ [장면 6]에서는 보도 내용에서 다룬 다양한 정보를 뉴스 수용자가 효과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보도 내용들을 요약한 화면을 보여 주며 마무리한다.
44. (가)와 (나)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할 때, ㉑ ~ 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 대용 표현을 사용하여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㉒: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③ ㉓: 청유형 문장을 사용하여 보도 내용과 관련한 수용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 ④ ㉔: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 내용의 흐름을 전환하고 있다.
 - ⑤ ㉔: 인용 표현을 사용하여 토론회에 다녀온 시민의 견해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뉴스 생산자는 여러 가지 정보 가운데서 수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시의성 있는 정보를 선택한다. 그리고 뉴스 수용자가 문제 상황에 관심을 지니고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뉴스를 구성한다. 그 과정에서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온 정보를 활용한다. 또한 뉴스 생산자는 쟁점이 되는 화제를 다룰 때 공정성 있는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다.

- ① (가)에서 뉴스 생산자가 화제와 관련된 전문가의 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뉴스 생산자가 보도를 시작하며 수용자의 경험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수용자의 관심을 유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나)에서 뉴스 생산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대립하는 입장을 모두 보도했다는 점에서 기사의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뉴스 생산자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제안했다는 점에서 기사의 공공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가)와 (나) 모두에서 뉴스 생산자가 최근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소식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정보의 시의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45.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파악한다.

2문단에서는 버락치기로 과제를 수행했을 때 집중력이 높아져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 학생들의 생각과 관련하여, 과제의 완성도가 낮아져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ㄱ-2는 과제를 제출 시한에 임박해서 수행하는 편인 학생들에게 과제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그리고 ㄴ은 짧은 시간에 과제를 수행하면 과제 외의 것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못하는 터널 시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한 신문 기사이다. 이들 자료에서 학생과 교사의 과제 평가 기준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활용해 2문단에 학생과 교사의 평가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덧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ㄱ-1은 학생들에게 과제 제출 시한에 임박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편인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질문에 '예'라고 답한 학생들이 78%에 이르므로 이를 활용해 우리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마감 시한에 임박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1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② ㄴ은 우리 뇌의 작용과 관련하여 짧은 시간에 한 가지 문제에 관심을 쏟다 보면 그 문제 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 집중하지 못함을 언급한 신문 기사이다. 이를 활용해 짧은 시간에 과제를 수행하려 할 때 과제 이외의 다른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3문단의 내용을 보강할 수 있다. ③ ㄷ은 시간에 쫓기면 과제 수행에 필요한 고등 사고 능력이 발휘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인터뷰 내용이다. 이를 활용해 마감 시한에 임박해서 과제를 수행하면 과제의 완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2문단의 내용을 보강할 수 있다. ⑤ ㄴ은 우리 뇌가 부족함을 인식하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한정된 집중력을 몰아주게 된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이다. 그리고 ㄷ은 과제를 수행할 때 중요도와 시급성을 기준으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인터뷰 내용이다. 이를 활용해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4문단에 보충할 수 있다.

[언어와 매체]

35	②	36	②	37	④	38	③	39	①
40	③	41	①	42	⑤	43	⑤	44	⑤
45	④								

35. [출제의도] 부정 의미의 용언과 쓰이는 단어를 이해한다.

'여간'은 부정문 형식의 문장에 함께 쓰여 그 문장의 의미를 강한 긍정으로 해석되게 하는 단어로써, ㄴ에서 '여간'으로 인해 문장이 의미가 '탐스럽다'를 강조하는 긍정으로 해석된다.

[오답풀이] ③ ㄷ의 '밖에'는 '이것밖에 하지 못했다'에서와 같이 부정 의미의 용언과 어울려 쓰인다. ④ '좀처럼'은 부정 의미의 용언과 어울려 쓰이는데,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부정 의미를 내포하는 문맥에서도 쓰일 수 있다. ㄹ의 '그 아이들이 좀처럼 제 말을 듣겠습니까?'는 '그 아이들이 좀처럼 제 말을 듣지 않는다'를 뜻하므로 '좀처럼'이 쓰일 수 있다. ⑤ '움짤달짝하다'는 부정 의미의 용언과 어울려 쓰인다. 따라서 ㄴ은 '나는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움짤달짝하지 못했다'와 같이 수정하여야 어법에 맞는다.

36. [출제의도] 단어의 시대적 형태와 의미를 이해한다.

㉠의 국어사 자료의 '별로'는 긍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난 문맥에서도 쓰이고,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난 문맥에서도 쓰이고 있다. 그러나 현대 국어에서 '별로'는 부정 의미의 용언이 나타난 문맥에서만 쓰인다. **[오답풀이]** ㉠의 자료를 보면, 현대 국어의 '귀찮다'

는 국어사 자료 '귀치 아니컨만'에서 알 수 있듯이 '귀하지 아니하다'가 축약된 형태이다. 현대 국어 '귀찮다'는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괴롭거나 성가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의 자료를 보면, 현대 국어의 '시원찮다'는 국어사 자료 '시원치 아니하여'에서 알 수 있듯이 '시원하지 아니하다'가 축약된 형태이다. 현대 국어 '시원찮다'는 국어사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와 유사하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과 문장 성분을 이해한다.

㉢는 '상태'라는 명사에 '로'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은 형태이다. 또한 '상태'를 관형사절이 꾸미고 있으므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이다.

[오답풀이] ㉣ 관형사절을 찾을 수 없다. ㉤ 관형사절을 찾을 수 없다. ㉥ 관형사절이 꾸미고 있는 명사에 부사격 조사가 붙지 않았다. ㉦ 관형사절이 꾸미고 있는 명사에 부사격 조사가 붙지 않았다.

38. [출제의도] 음운 변동을 이해한다.

㉧ '[자료] (4)'의 사례를 보면 어간이 'ㄴ'로 끝날 때 그 어간 바로 뒤에 오는 어미의 초성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설 1'은 합리적이지 않다. ㉨ '[자료] (1)'의 현상이 어간 중성에서 일어나 어간 중성의 'ㄷ'이 'ㄷ'으로 교체된 후, '[자료] (3)'의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 이후에 어간 중성에서 탈락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설 2'를 통해 '흙다'가 [홀따]로 발음되는 과정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

39. [출제의도] 높임 표현과 겸양의 표현을 이해한다.

㉩ '저희'는 그 자체에 낮춤의 의미가 있는 특수 어휘로, '드리다'는 그 자체에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 '연세'를 그 자체에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로 볼 수 있으나, 그 자체에 낮춤의 의미가 있는 특수 어휘는 사용되지 않았다. ㉫ '모시다'를 그 자체에 높임의 의미가 담긴 특수 어휘로 볼 수 있으나, 그 자체에 낮춤의 의미가 있는 특수 어휘는 사용되지 않았다.

40. [출제의도] 매체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한다.

'준형'은 하이퍼링크를 활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애니메이션 영상 자료를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오답풀이] ㉬ '현진'은 자신이 직접 생산한 문서 파일이 아니라, ○○고 가정 통신문을 찍은 사진 파일을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생산에 대해 이해한다.

㉭을 고려하여, 이미지, 그래프 등을 사용하여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급식 메뉴의 종류를 보여주는 사진은 제시하지 않았다.

[오답풀이] ㉮을 고려하여, 세 번째 카드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고 급식 잔반 처리 비용을 쓰레기통 모양의 이미지와 화살표 이미지를 활용하여 변화의 추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을 고려하여, 첫 번째 카드와 마지막 카드에서 '올라갑니다'라는 글자에 위로 향하는 화살표를 결합하여 카드 내용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 ㉺을 고려하여, 세 번째 카드에서 우리 학교 급식 잔반 처리 비용을 제시하고 있다. ㉻을 고려하여, 여섯 번째 카드에서 잔반을 줄이면 ○○고 급식의 질이 올라가는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를 수정·보완한다.

수정된 네 번째 카드에서 ○○고 영양사는 잔반을 30% 줄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약 천 명의 한 끼 식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잔반 줄이기를 통해 큰 효과를 거둔 다른 학교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 두 번째 카드의 내용은 학생들이 급식을 남기는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따라서 수정된 두 번째 카드에서 '왜 급식을 남길까?'로 제목을 수정한 것은 적절하다. ㉽ 수정된 두 번째 카드에서 원그래프의 여러 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가지의 내용을 카드의 아래쪽에 따로 정리해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3. [출제의도] 매체의 특성을 이해한다.

[장면 6]에서는 [장면 3]의 내용 중 전문가의 시연 장면을 다시 보여 주며 보도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는 보도 내용에서 다른 여러 가지 정보를 뉴스 수용자가 효과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보여 주는 화면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풀이] ㉿ [장면 2]부터 [장면 5]까지의 화면 상단 한쪽에는 보도 내용과 관련한 핵심 어구를 고정하여 제시했다. 이를 통해 뉴스의 수용자는 보도 내용의 중간부터 뉴스를 시청하더라도 보도 내용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㊀ [장면 3]에서는 전문가의 시연을 통해 검색어 제안 기능을 악용하는 사례를 보여 주었다. 이는 시연을 통해 검색어 제안 기능이 악용되는 방식에 대한 수용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㊁ [장면 4]에는 대가를 받고 검색어 제안 기능에 특정 업체명이 제시되도록 하여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은 사건을 음성 언어로 설명하고 있고, 그 사건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관련하여 화면 구성에 방향을 나타내는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수용자가 사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44. [출제의도] 매체 자료에 반영된 언어적 특성을 이해한다.

(나)의 신문 기사는 토론회를 방청한 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인용 표현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㊂ ㉠에서 기사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보도 내용과 관련한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생산과 수용에 대해 이해한다.

(나)의 뉴스 생산자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직접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㊃ 뉴스 생산자는 쟁점이 되는 화제를 다룰 때 공정성 있는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다. (나)의 기사는 검색어 제안 기능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두 보도하였으므로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사로 볼 수 있다. ㊄ (가)의 뉴스 생산자는 최근에 검색어 제안 기능이 본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제보가 급증했다고 하고, (나)의 뉴스 생산자는 최근에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제안 기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하였다. 이는 수용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시의성 있는 정보를 선택하여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